

2008.02

www.airforce.mil.kr Vol.356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기획특집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

공군, 공군인

최우수 조종사 안성찬 소령



홍매화 겨울나기

최영철



그해 겨울 유배 가던 당신이 잠시 바라본 홍매화
흙 있다고 물 있다고 아무데나 막 피는 게 아니라
전라도 구례 땅 화엄사 마당에만 핀다고 하는데
대웅전 비로자나불 봐야 뿌리를 내린다는데
나는 정말 아무데나 막 몸을 부린 것 같아
그때 당신이 한겨울 홍매화 가지 어루만지며
뭐라고 하셨는지
따뜻한 햇살 내린다고
단비 적신다고
아무데나 제 속내 보이지 않는다는데
꽃만 피었다 갈 뿐
열매 같은 건 맺을 생각도 않는다는데
나는 정말 아무데나 내 알몸 다 보여주고 온 것 같아
매화 한 떨기가 알아버린 육체의 경지를
나 이렇게 오래 더러워졌는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아
수많은 잎 매달고 언제까지 무성해지려는 나
열매 맺지 않으려고
잎 나기도 전에 꽃부터 피워올리는
홍매화 겨울 나기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 최영철 : 「홍매화 겨울 나기」, 『일광욕하는 가구』,
문학과지성사, 2000

* 최영철 : 1956년 경남 창녕 출생. 1984년 무크지 『지평』, 『현실시각』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 시작, 198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 『개망초가 쥐꼬리망초에게』, 『일광욕
하는 가구』, 『아성은 빛나다』, 『홀로 가는 맹인 악사』, 『가족
사진』, 『그림자 호수』 등이 있다.

〈시 해설〉

흙 있고 물 있다고 아무데서나 꽃 피우지 않는 꽃이 있다는데, 우리는
아무데나 몸을 부리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햇살 내리고 단비 적신다고
아무데나 속내 보이지 않는 꽃이 있다는데, 우리는 알몸 다 보여주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꽃만 피었다 갈 뿐 열매 같은 건 맺을 생각도
않는 꽃이 있다는데, 우리는 열매부터 생각하며 무성하게 서 있는 건
아닌지요? 홍매화, 겨울 홍매화.

- 시인 도종환



※ 표지설명 :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기숙도 훈련 중인 김중수 중령(전)

표지 : 김윤해(사진작가)

뒤표지 : 권순정(제20전투비행단)

공군 February 2008 No.356

발행일자 | 2008년 2월 5일(통권 제356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재연, 일병 이호용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04 기획특집 _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

릴레이 인터뷰 1 _ 항공우주의료원장 정기영 대령

릴레이 인터뷰 2 _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우주인개발단장

릴레이 인터뷰 3 _ NASA에서 심리생리학 공동연구 마치고 귀국한 공사 박세권 중령

12 현장탐방 _ 우주인 양성의 요람, 항공생리훈련의 현장을 찾아서

18 공군, 공군인 _ 2007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안성찬 소령

20 World-Wide Vision _ 잊혀지지 않은 전쟁

24 참모총장 스케치

26 공군은 지금

30 여기는 다이만 _ 사막의 WBC(World Baseball Classic)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1 _ 전문하사를 만나다

35 PREVIEW _ 2월의 문화행사

36 Bird Alert! _ 숲속의 폭군 때까치

39 2월의 공군 역사

40 만나고 싶었습니다 2 _ 산 위의 부대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42 INFORMATION _ 군 복무기간을 '변화와 성장의 자기계발기간'으로

44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미래의 문맹은 눈깔 없는 사슴이다

46 생각하는 그림 _ 마이클 조던을 움직인 사람

48 우리, 건강합시다 _ 겨울철 건강을 위한 허리돌리기

50 부대동정 _ 군수사령관 창정비 현장 근무

51 부대동정 _ 공군방공포병학교 '사이버 면담 체계' 구축

52 e-Sports <ACE> _ 「皇帝」 사전에 「ctrl+v」는 없다

56 책마을 _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는 공군

릴레이 인터뷰 1_ 항공우주의료원장 정기영 대령	06
릴레이 인터뷰 2_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우주인개발단장	08
릴레이 인터뷰 3_ NASA에서 심리생리학 공동연구 박세권 중령	10
현장탐방_ 우주인 양성의 요람, 항공생리훈련의 현장	12

글 전력기획참모부

최근 핵심표적 위주의 정밀타격으로 우군 및 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수행을 보장해 주는 효과중심작전(EBO) 개념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래의 전력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시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는 항공우주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항공우주력은 주변국에 대하여 공세적 행동 또는 힘의 투사태세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억제, 전략적 거부, 제2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략·작전 중심의 미래전의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9년 창군 당시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한 대한민국 공군은 현재 F-15K 40여대를 비롯하여 KF-16, F-4 등 총 500여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세계 8위권의 공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전투효과성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기 경보, 공중급유, 전자전 전력 등은 미보유 상태이며, 전투효과성 창출의 기반전력에 해당하는 정찰전력 또한 장거리, 전 천후 영상정보 수집능력이 제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변국보다 한 발 뒤쳐져 있고, 일부 전력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군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야심찬 종합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에는 공군의 비전인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한 요구능력과 로드맵 등 구체적 청사진이 담겨 있어,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정보군 및 과학군, '작지만 강한 공군'으로 세계 속에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공군인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한 5개 분야

첫째는 정보·감시·정찰체계이다. 한반도 외곽에서 즉각적인 대응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광역 징후감시, 조기경보 및 표적정보 획득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공군은 대기권, 성층권 및 우주공간의 활용을 통해 중고고도 및 우주차원의 상호보완적인 전천후 광역감시 정찰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정밀타격체계이다. 원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핵심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적의 항공전력에 대응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제실패시, 또는 지상군 및 해군의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공·지 및 공·해 합동작전을 주도하여 조기 승전 여건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적 수준의 전투기 전력을 양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는 지휘·통제체계이다. 미래전에서는 적의 군사력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미래전의 승패는 먼저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감시정찰체계에서 표적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정밀타격 전력을 실시간에 운용할 수 있는 첨단화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는 방호체계이다. 현대전에서는 적의 항공기에 의한 공격뿐만 아니라 지·해·공 어디에서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체계에서 획득한 적의 위협정보를 기초로, 고고도에서 저고도까지 단계적인 요격을 실시할 수 있는 방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동지원체계이다. 신속한 장거리 항공군수지원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각종 군수지원 소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여 전투력을 증진하고, 작전수행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공군은 중·장거리 중형 및 대형 공중수송 능력을 확충하고 공중급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공·지·해 합동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거리 작전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우주전력체계 구축의 주체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우주분야 발전을 위해 공군은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 재정립한 우주전력체계 구축계획을 살펴보면, 공군은 1단계로 우주인프라 구축, 레이저 위성 추적체계 및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구축, 우주기상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연동 등을 통한 국가우주자산 활용 우주기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2단계로 광학 및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구축, 위성영상 수신체계 구축, 위성 정밀접근 및 착륙능력 확보 등을 통한 제한적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단계는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 군 전용위성 보유 및 운용, 위성발사체 운용능력 확보, 위성요격용 레이저 무기 전력화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우주전력체계 구축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가 필요한데 다음 몇 가지 이유로 구축의 주체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첫째, 항공력과 우주력은 전장의 동일 수직 공간상에 존재하는 분리 불가능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지난 50년간, 3차원 공간을 통해 무기체계운용 경험과 능력, 그리고 기술 등을 축적한 공군은 우주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군이 될 수 있다. 둘째, 지휘통제체계의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성공적인 우주력 운용을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작전수행은 필수 전제조건인데, 이 점에서 공군은 최적의 군이다. 셋째, 우주력의 특성은 범세계적 운용능력, 유연성, 경제성, 효율성, 견고성 등인데, 이는 그동안 공군이 유지해온 공군력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비록 여건이 어렵더라도 전 공군인은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함께 꿈을 꿀 것이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분야와 우주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의 공군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㉔

이번 호 「공군」에서는 우주관련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았다. 우주인 선발과 양성의 일익을 담당했던 공군 항공우주 의료원장 정기영 대령,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인 선정과 소우주 우주선 발사와 관련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기혁 우주인개발단장, 마지막으로 NASA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돌아온 공군사관학교 박세권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프린티어를 통해 항공우주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 보자.

2008년 우주인 사업에서 2020년 달까지 착륙까지, 독보적 **우주의료기술 공군**이 주도할 것입니다

- 항공우주의료원장 정기영 대령

원고자의 편집실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항** 공의료원이 항공우주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 이제 2년째에 접어들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의료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제안이 90년대 후반에 있었지만, 당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지요. 우주분야에 대한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우주인 선발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국군 부산병원장으로 있을 때였죠. 곧이어 제가 항공의료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경, 사회의 인식변화와 함께 유인우주사업은 종전과 달리 쉽게 승인을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기영 대령의 노력으로 공군은 군부대로는 처음으로 ‘우주’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판식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항공 ‘우주’ 의료원이다.

올해 4월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될 한국 최초의 우주인 고산(예비우주인 이소연) 씨를 발굴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된 항공우주의료원. 항공우주의료원이 이러한 위상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군의료시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0년 항공의학분야의 노하우

“군의료기관의 실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처음 우주인 선발 심의체가 구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은 공

군의 일개 의료원이 새로운 분야에 참가하는데 대한 불신을 갖게 마련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이견 아니다 싶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의학에 비해 50년 이상 전문항공의학분야를 다루어 온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이야말로 우주과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하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단순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논리라는 거였죠. 처음엔 가우뚱 하던 분들도 이내 제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대표적인 항공의학분야의 의사가 와서 항공우주의료원을 점검했고, '문제없다'는 최종판정을 내렸죠. 이후의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우주인을 선발한 후 컴퓨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러시아로 가져갔더니, 우리의 검사 결과를 믿고 복잡한 검사를 생략할 정도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의원장'이라고 하면 침놓고 뜸뜨는 '한의원' 원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알아가고 있다. 항공우주의료원이 대한민국 유인우주시대의 개척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공군 공중근무자들은 우리 의료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군의료기관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만큼 항공우주의료원의 노하우는 확실하고 전문적입니다. 국내의 다른 조종사들이 공군의 조종사와 같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일반임상의학과와의 차별성

항공우주의학이란 정상적 환경에서의 생리적 변화가 중심이 되는 지상의 일반의학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주공간이라는 비정상적 환경에서의 새로운 인체생리현상은 새로운 질환을 낳기도 한다. 우주여행을 가게 될 세대에게 이러한 우주의학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분야가 아니다.

"산소부족, 기압차, 소음, 진동, 저체온증, 비상탈출상황... 지상과 전혀 다른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렇듯 특성화된 분야에서의 우주의학은 일반의학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심장질환이 항공여행의 제한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적 대책이 없으면 우주에 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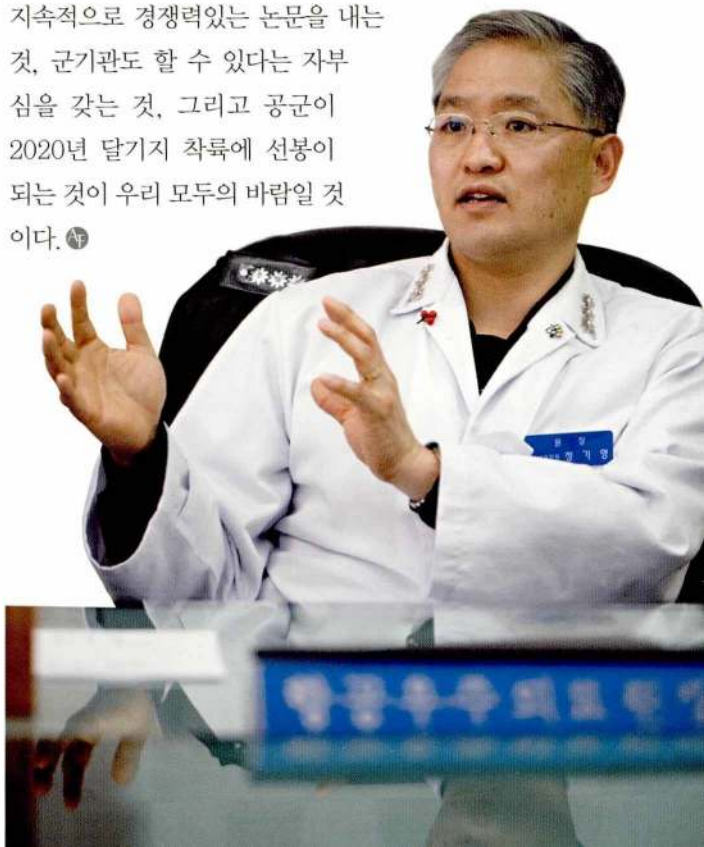
가 없는 것이고, 곧 '유인' 우주개발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화성이나 달착륙과 같은 우주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는 임무에서는 더욱 필요해지는 분야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위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임상의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공군 군의관들이 그나마 전문성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공군 의사들이라도 순수성과 꾸준한 끈기를 갖고 연구를 함께 해 나가기 바랍니다. 참으로 엄청난 분야입니다."

항공우주의료원의 브랜드 가치

정기영 원장은 편집실과 취재를 하기 바로 전에도 우주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에 다녀왔다. 그리고 4월 8일 고산 씨가 우주선을 타는 날에도 마지막까지 의료 지원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 항의원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과 이에 따르는 노하우는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풀타임으로 우주인을 의료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항의원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4월 8일, 첫 우주인 배출에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 LG는 알 듯, '항공우주의료원'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게 한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있는 논문을 내는 것, 군기관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공군이 2020년 달까지 착륙에 선봉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4월 8일 소유즈 우주선 발사, 마지막까지 관전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우주인개발단장 인터뷰 -

글 편집실 사진 중사 성자용

염려했던 대로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인개발단은 매우 비뻔했다. 개발단장은 수시로 러시아를 드나들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주공간에 쏘아 올려질 우주인 고산 씨와 예비우주인 이소연 씨는 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최 단장과의 인터뷰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 연구원에 의하면 무궁화 위성이 쏘아 올려질 때 관련부처는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몇 달간 근신하고 지냈다고도 한다.

하지만 브라운관 밖에서 관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궁금한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로켓이나 위성이 아니라 '사람'이 쏘아올려진다는데 이러한 호기심이 무리는 아니지 않은가. 우주정거장에서는 무슨 실험이 진행될 것인지, 우주인은 무얼 먹는지, 지금 우주인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사히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두 우주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 갔다봐도 살아 돌아올 사람

팔은 안으로 굽는 법. 공군인들이야 비록 최종심사까지 경합한 끝에 공군의 이진영 소령이 탈락한 아쉬움을 감출 순 없겠지만, 그만큼 당당히 우주인의 자격을 받아낸 고산 씨에 대한 기대도 남다르다. 최 단장은 고산 씨에 대해 한마디로 '어디 갔다봐도 살아 돌아올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고 씨는 듬직하고 집념이 강하다. 표현이 매우 직설적인 사람이라면서 '이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 스스로는 우주인이 되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선발과정을 보면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두뇌의 순발력부분에서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공군 구성원들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하버드 등 외국명문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두뇌 집단, 여성우주인 선발을 대비한 여성조종사, 그리고 최강의 젊은 엘리트 파일럿까지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했었죠. 초기 심사당시 대부분의 과정에서 1등을 하다가 탈락한 공군 자원이 있

었는데, 체력 내지 신체검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첫 우주인 선발이라 우리도 매우 조심스러웠던거죠. 괜찮은 공군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주인들의 직책은 과학기술부 선임연구원

"지금 우주인들은 함께 탑승할 러시아 우주인들과 크루트레이닝(crew-training)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비팀과 탑승팀으로 나뉘어 훈련을 받고 있지요. 두 팀은 분리되어 훈련을 받는데 두 팀의 훈련내용은 비행 6시간 전까지 똑같습니다. 예비팀의 탑승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탑승 직전까지 '확실히 탑승하겠느냐'고 질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지난 25년 동안 탑승자가 포기하여 예비가 탑승한 경우는 2번 있었습니다.

고산, 이소연 씨 두 사람은 과학기술부의 정규직 선임연구원으로 등록됩니다. 임무 후에도 후속 실험을 조력해야

하며, 다음의 유사한 임무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환 후 상당기간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언론에서 가만히 놔둘지 의문입니다만...(웃음)

관전 포인트 : 우주에서의 생활과 실험

누가 우주인이 되느냐에 사람들은 참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정작 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까? 아마 이것이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4월 8일 최종인수검사를 마친 소유즈 우주선이 발사되기 전에도 각종 장비를 로딩시키기 위한 무인 화물선이 올라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험장비와 음식물들은 한국의 최초 우주인이 탑승하는 소유즈 우주선에 직접 싣고 올라간다. 체류기간은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총 12일이지만 도킹에 이를, 귀환하는데 하루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활동하는 시간은 9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물은 크게 보관방법상 식품연구원의 동결건조식품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선조사식품 두 가지로 나뉜다. 동결건조식품은 무게를 절감하고 영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반면 음식의 맛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사기가 북돋워지기 때문에 김치를 가져가는데, 이 경우 김치의 생명인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방사선조사식품형태로 만든다. 하지만 방사선조사 김치도 유산균이 죽으며 원래의 맛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한다.

한국 우주인은 5가지 정도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 중 하나가 우주공간에서의 노화정도를 측정하는 초파리 실험. 인간은 평균수명이 70~8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실험으로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수명이 짧은 초파리는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실험대상이다. 산업적 활용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결정성장실험'도 진행된다. 예를 들어 금속유기결정실험은 합금의 수소저장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수소연료를 쉽게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타 우주공간에서 무게를 재는 우주저울실험, 배아줄기세포가 우주공간에서는 어떻게 자랄 것인지에 대한 실험, 아직 찍힌 적이 없는 고층대기의 번개현상 촬영 등 다양한 임무가 전개된다.

공군과의 광범위한 교류를 바란다

"사람이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관심과 뉴스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덕체를 겸비한 젊은 사람이 장한 일을 한다'는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단장은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 본연의 목표인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는 듯 했다. 올 한해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실험결과를 정리 발표하고 각종 백서와 서적을 발간하는 일만 해도 방대할 것 같습니다."고 답변한다.

이번 우주인 선발과 탑승까지 함께하는데 공군은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 한 몫을 했다. 이를 보아 온 최 단장은 마지막으로 공군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바라고 있다. "처음엔 군과의 협력에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군만이 가진 항공생리훈련 장비들과 상업의료시설에 비해 안정적인 시스템, 그리고 항공우주의학의 노하우들은 결국 우주인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군은 항공공학분야에 관련한 Ph.D 인력 확보 수준이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공군간에 대규모의 인적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④





지난 2007년 1월 23일, 현역군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NASA와 함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초청되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박세권 중령(46, 공사 32기). 2020년 유인우주선 발사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평가받으며 더욱 주목받았던 그는 얼마 전 1년여 간의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선포의 해이기도 한 2008년, 박세권 중령이 말하는 항공우주군의 비전과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작년 이맘때 즈음, 박세권 중령은 현역군인 최초로 전 세계 우주 연구의 심장인 NASA로 진출했다. 그것도 '우주 환경에서의 적응훈련'이라는 의미심장한 테마로 말이다. "NASA Ames 연구소 내에 있는 심리생리학 연구실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했죠. 우주비행사들이 장시간 접하게 되는 독특한 환경 아래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리적으로 분석, 연구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였습니다."

박 중령의 NASA 입성은 꾸준한 연구의 결실이었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연구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며, 이를 항공우주분야에 적용하고자 NASA에 공동연구를 제의해 승인받았다.

"무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도 그랬고, 무엇보다 NASA측에서 우주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에 한해 공동연구원

의 자격으로 초빙을 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미국 NASA가 외국인인 현역군인을 연구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박 중령의 어깨는 무거웠다.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은 물론, 함께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장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을 품고 떠났었죠."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NASA와 함께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연구원은 제가 거의 유일했기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했던 연구생활

박 중령이 파견기간 중 수행했던 연구는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심리생리학에 관한 실험이었다. 즉, 인간의 주 생활무대가 아닌 우주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그곳에서 활동하는

우주비행사, 조종사들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리적, 생리적인 특성을 측정,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우주 왕복선의 경우 보통 15일의 체류기간동안 민간항공기 안에서 들리는 소음보다 훨씬 심한 소음을 24시간 들으며, 6시간마다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가며 생활해야 합니다. 잠도 벽에 붙어서 자야 하구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주공간에서는 생존여부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 중령은 본 실험에서 개발한 AFTE(autogenic feedback training exercise) 훈련방법을 적용, 우주공간에서의 피로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길다면 길수도,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1년여의 시간동안 그의 평소 생활은 어떠했을까? “보통 연구원들의 경우 여름에는 약 2주,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끼고 2주 정도 휴가를 다녀오지만, 저는 그런 휴가를 모두 반납해 버렸죠. 오히려 그만큼 더 많이 연구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히려 연구만 하기 위해 식구를 죄다 놔두고 혼자 왔다는 그, 심지어 외로움도 연구로 달렸다고 한다. 그의 치열한 일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한번은 수면박탈 연구를 위한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죠. 실험자를 선발해서 30시간 정도 잠을 재우지 않고, 그때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 비용도 아낄 겸 피실험자를 자원했죠. 근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피로해지고, 그런 상태를 솔직히 보여주어야 하는데, 공군장교는 뭐든지 잘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서 피곤해도 티내지 않고 껌 참아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실험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실험을 방해한 꼴이 되어버렸죠.(웃음)”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NASA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으로서 그가 바라본 우리 공군의 항공우주연구 인프라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울러 진정한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적자원인 휴먼웨어라고 봅니다. 아직은 다른 항공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갖추어 놓은 인프라가 전무한 것이나 다른

없지만, 위에 말했던 3가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 머지않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특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즉, 사관학교 내 항공우주연구소에 속한 인간성능 연구실의 경우처럼 항공우주에 관한 특화 센터를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위탁교육이나 연수 등을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자들이 그 분야의 연구를 해서 성과를 계속 내주어야 합니다.”

항공우주분야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말로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매우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항공우주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죠. 이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깃발 꽂으면 우리의 영역입니다. 누군가 먼저 연구를 시작하고 나가면, 바로 그 분야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최고인 NASA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충분히 우리에게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주인 양성의 요람, 항공생리훈련의 현장을 찾아서

4월 발사되는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할 두 명의 우주인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생리훈련과 신체검사 등을 담당했다. 특히 3차원 공간에서의 적응성과 생존능력을 검증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생리훈련은 현재 국내에 공군만이 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생리훈련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일반인들이 공군의 전투기를 탑승할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공군」이 훈련 현장을 찾아갔을 때,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규훈련이 시행 중이었다. 훈련 중인 조종사들은 강한 훈련에는 때로 긴장하기도 하고 유사시 생존의 법칙을 강의하는 현장에서는 엄숙해지기도 했다. 이 특별한 훈련의 현장을 만나보자.

글 편집실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가속도 훈련

가속도 훈련에 앞서 교관 김홍진 준위가 브리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흡사 태권도의 기합소리 같은 ‘읍’, ‘읍’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진다. 이는 의식상실(G-LOC)에 빠지지 않기 위한 L-1 호흡법이다. 항공생리훈련 중 조종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훈련이 바로 가속도 훈련이다. 급격한 중력증가를 견뎌야 하는 조종사들로서는 필수적인 코스지만, 평소의 기동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훨씬 급격한 변화에 견뎌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16조종사의 경우 9G(중력 가속도의 9배에 해당) 15초를 견뎌야 한다.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정확한 호흡법과 자세를 의식적으로 재확인 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속도 훈련기 내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외부에서 훈련자의 관찰이 가능하며 녹화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시간별 상황별 자세와 호흡상태를 체크해볼 수 있다. 이 녹화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말에 모두들 웃는다. 가속도 훈련

으로 인해 긴장되고 일그러진 자신의 표정이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가속도 훈련에 임하기에 앞서 그 중요성에 대해 김종순 중령(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항공생리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2차원적인 공간지각능력을 가진 사람이 3차원 공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기동에서 중력가속도의 증가를 경험하지만 주기적으로 의식적인 정확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특히 유사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급격한 기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가속도 훈련에 임하는 그는 살짝 긴장한다. 호흡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속도 훈련기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니 L-1 호흡에 열심이다. 다행히(?) 의식상실의 염려는 없어보였다. “때때로 의식상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시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재시험도 그렇지만, 일단 해내지 못하는데 대해 자존심이 상하지요.”

가속도 훈련에 대해 브리핑 중인 교관 김홍진 준위





저압실 훈련

6전대 조종사 양정희 대위(진)은 이번 훈련 중 저압실 훈련이 쉽지 않았다고 전한다. '20번, 숨 좀 깊게 쉬라'는 경고를 여러차례 들었다. 그날의 컨디션에도 많이 좌우된다는 저압실 훈련은 2만 5천피트에 해당하는 고고도 상황을 훈련기 안에서 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도에서는 주로 산소결핍이 문제가 된다. 산소마스크를 벗은 채로 구구단을 외거나 자기 이름을 쓰는데, 그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내 이름이 뭐였지?' 하는 순간이 오면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일반인들의 경우 토하거나 귀를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8단을 외고 있는데 속이 울렁대더군요. 산소의 중요성을 체험했다고나 할까요?"



저압실 훈련장 전경



저압실 훈련장 내부

비상탈출 훈련

순간적으로 좌석이 하늘높이 솟구친다. 유사시 항공기를 버리고 조종사의 생존을 위해 안전하게 좌석을 사출해야 하는 경우를 훈련하는 비상탈출 훈련. 임병철 중령(진)은 보기보다 어려운 훈련은 아니라고 전한다. 탈출에 좋은 자세와 절차를 숙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절차를 수행하고 고정된 자세만 취하면 훈련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훈련은 쉬워도, 실제 상황은 탈출하기에 항상 용이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탈출 훈련(자료사진 | 하늘여행)

비행착각 훈련

안타깝지만 많은 추락사고가 비행착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비행착각 훈련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다. 비행착각 훈련을 하면 비행착각에 절대 빠지지 않는 걸까? 훈련 중이던 국방부 이호준 중령(진)은 '착각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착각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래서 비행착각이 무서운 것이다. 착각을 의식해서 버티고를 외쳤다면 이미 80~90%는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설명을 들으니 착각훈련기에 직접 탑승해 보라며 필자의 손을 끌었다. 느끼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이다. 평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 계기는 기울어 있었고, 계속 기울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 순간 훈련은 끝나 기계는 멈춰 있었다.

문제는 훈련에 의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훈련을 지속한 교관들의 평형감각기관도 똑같은 착각을 경험할 뿐이다. 그저 훈련을 통해 계기를 믿고 감각이 아닌 이성에 의해 조종해야 한다. 위아래를 분간할 수 없는 야간의 해상이나 구름 속을 비행해야만 하는 조종사들의 고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행착각 훈련 현장

교관의 자부심

교관들을 만났다. 가속도내성훈련관 김홍진 준위는 체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체력이 좋은 특전사 요원들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고 한다.

비행착각 훈련 내내 친절한 설명으로 착각의 경험을 도와준 비행착각훈련담당 정원철 중사 등 대부분의 훈련교관들은 훈련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고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항공생리훈련을 담당하다보면 저압실과 같은 극한의 조건에 신체를 장기간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종사의 선발부터 유지,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며, 조종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그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㉞

모니터를 보며 비행착각 훈련을 설명하는 정원철 중사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생리훈련 후 우주인 고산 씨가 남긴 메시지 트리

2007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 안성찬 소령

- 지난 한해 영공방어를 위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창공의 MVP’
- 초심 잊지 않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수상 비결

1979년부터 실시된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제도는 일선 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비행기량은 물론 비행성과, 전문지식 수준, 체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우승자인 ‘TOP GUN’과는 달리 『최우수 조종사』는 1년 동안 모든 임무수행 분야에 걸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TOP GUN이 올림픽 사격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최우수 조종사』는 국가별 전체 순위에서 종합 1등을 차지한 격이다. 즉, 『최우수 조종사』는 가장 가치 있는 조종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공군의 MVP(Most Valuable Pilot)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2007 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제20전투비행단 120전투비행대대 안성찬 소령(安成燦, 39세, 공사 40기, 주기종 KF-16)이 선발됐다.

원고정의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공보과 사진 중사 편보현



지난 1993년 F-5로 조종사 생활을 시작한 안 소령은 T-37 중등비행교관을 거쳐 2000년부터는 주기종을 KF-16으로 전환하였으며, 2,4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다. 안 소령은 조종사로서 최고 등급인 교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투시경 임무(NVG)교관, 야간 저고도 특수무기(LANTIRN) 자격, 시험 비행 자격 등을 갖고 있어 비행단 내에서 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출격할 수 있는 전천후 「팔방미인」이다.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하다. 비행훈련시에는 초등 2등, 중등 1등, 고등 3등을 기록하며 탁월한 성적으로 조종사의 길을 시작한바 있으며, 1995년 비상처치 평가우수 수상을 시작으로 1998년 사령관 웰던(Well done) 상, 2006년 사령관 안전 표창, 2007년 참모총장상 등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실력만큼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KF-16 최초 대대인 제20전투비행단 120전투비행대대에서 비행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안 소령은 비행에 있어서 후배들에게 매우 엄격한 선배로 통한다. “자신 있게 비행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자”는 신념하에 비행교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후

* 항공기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유효적절한 조치로 인해 대형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시킨 장병에게 주는 상

배들에게 비행준비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을 용납하지 않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비행에 임할 것을 강조한다.

안 소령의 좌우명은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안 소령은 좌우명대로 修身을 위해 철저한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조종사로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바쁜 조종사 생활 중에도 틈틈이 준비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국외 위탁교육요원으로 선발되어 미공군에서 비행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바 있으며, 국방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한 안 소령은 평소 테니스와 축구, 골프, 조깅,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전투조종사로서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테니스를 즐기는데 강력한 스트로크와 민첩함을 통해 승리하는 모습이 전투조종사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고의 비행기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행을 할 때는 겸



손하게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안 소령은 “매사 긍정적인 태도로 주어진 비행임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대대원을 비롯해 정비, 무장 등 모든 요원들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최우수 조종사』 수상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2007년 최우수 조종사』 이렇게 선발했다!

- 비행훈련, 비행경력, 작전참가 등 10가지 필수요소 종합평가
- 1979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29번째 배출

지난 1979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조종사들의 사기진작과 정예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다. 각 비행대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선 조종사를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선발함으로써 조종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명예이기도 하다.

최우수 조종사는 비행훈련, 비행경력, 작전참가, 사격기량, 창의력, 체력 등 조종사들에게 요구되는 10가지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1년 동안의 조종사 개인별 실적을 종합하여 선발하며, 주요 평가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종사로서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기본은 '비행훈련'이다. 그러므로 우수 조종사 선발에서도 비행훈련이 1,000점 만점에 260점이라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다. 연간 주야간 비행시간, 야간 근접항공지원이나 공격편대군 훈련과 같은 실전적 훈련 성과 등을 종합해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둘째, 비행경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조종사가 된 이후 총 비행시간, 전술무기 교관과정이나 고등전술 훈련과 같은 비행전문교육 경력, 야간 저고도 항법 및 표적 추적 장비와 야간 투시경 등 특수자격 보유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셋째, 실제 작전에 대한 참가결과이다. 영공방위는 조종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갖춰 실제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우수 조종사 선발에 있어 적성 항적 요격, 탐색구조, 비상대기 긴급출동 등 실제 작전 참가결과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이외에도, 실전적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사격기량, 비행과 관련한 학술 지식과 전술임무 능력, 대대의 비행안전 실태와 개인 무사고 비행기록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각종 혁신안 제안이나 전술개발 연구실적과 같은 창의력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무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박준오

한 국전쟁 당시 10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더블에이스 해롤드 피셔Harold Fischer 예비역 대령이 서울 국립현충원의 계단을 힘겹게 오른다. 이곳에서만큼은 지팡이를 짚지 않겠노라 다짐한 그는 계단 옆 난간동자로 대신 몸을 지탱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의 나이 82세. 다리가 왕년만큼 잘 따라주지 않아 목적지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하기가 일쑤다.

맨 위까지 오른 그가 시멘트 계단에 걸터앉을 때, 그와 동행한 7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헌화를 위해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다.

하와이와 필리핀에서 함께 입국한 참전용사들이 일으켜 주겠다고 제의를 해보지만, 그는 필요 없다고 손짓을 한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면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옆에서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국립현충원의 넓은 언덕에는 16만여 명의 한국 호국영령들이 안치되어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아직도 8,000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다. 미국 보훈처는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병 680만 명 중 아직까지 약 300만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화 후 피셔Fischer 대령은 다른 7명과 함께 단체사진 촬

영에 임한다. 대열에는 F-86 에이스인 훗 김슨Hoot Gibson 예비역 대령, 달에 두 번째로 발을 디뎠던 우주인인 동시에 F-86으로 2대의 MiG-15를 격추시킨 경력의 버즈 알드린Buzz Aldrin 예비역 대령, 그리고 찰스 클리브랜드Charles Cleveland 예비역 중장(MiG-15 4대 격추) 등 유명한 한국전 영웅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기자들이 실 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모두가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이다.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미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분단된 한반도로 돌아왔다. 자신들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공대공 전쟁

1950년 6월 25일, 13만 5천명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하였고, 8월이 되어 동맹군은 부산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었다. 공중에서도 개전 초기에는 북한군의 회전익 항공기가 동맹군 공군을 압도하였다. 공군, 해군과 해병대 조종사들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거대한 공군 전역(戰役)을 개시하였다.

클리브랜드Cleveland 장군은 증원전력이 도착하면서 동맹군이

한 달 이내로 북한 공군을 격멸시킬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1950년 11월, 약 50만 병력의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하였다. 중국과 소련 전투기들은 미군의 북진을 저지하였고, 이들은 최신형 전투기인 MiG-15를 앞세워 미 공군의 F-80을 제압하면서 MiG Alley로 알려진 압록강 이남지역에 대한 공중우세를 일시적으로 장악하였다. F-86이 12월 한반도에 도착하면서 전세가 다시금 역전되었는데, 미 공군은 전쟁 말기에 가서 북한 공군에 대해 10 대 1의 격추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F-86이 미그기에 훌륭한 적수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두 기종은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압록강 상공의 MiG Alley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고, 전투의 승패가 갈리고 조종사들이 목숨을 바친 곳도 바로 이 곳이다.

당시 중위였던 Fischer 대령은 1952년 11월 26일 첫 번째 격추를 기록했고, 1953년 1월 24일 자신의 다섯 번째 적기를 격추시킴으로써 공군 에이스 반열에 올랐다. 불과 47번의 출격으로 이루어낸 기록이며, 그는 70번째 임무를 수행하며 더블에이스가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10대를 격추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는 1953년 4월 7일 자신이 조종했던 전투기가 기중 정렬 불량으로 인해 6.50구경 기관총의 탄착군이 200피트씩 우측으로 빗나갔었다고 기억해낸다.

“당시에 그 전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은 제 자신을 타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투기를 조종하기로 결정한 건 저였으니까요.”

Fischer 대령이 이런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4대의 미그기가 후방에 달라붙었다. 그는 이들을 뿌리치는데 성공했고, 오히려 그들의 뒤에 붙어 중국 상공으로 몰아냈다. 그는 연료가 떨어진 요기에게 기지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은 공격을 계속했다.

이제는 전방에 두 대와 옆으로 뒤쳐진 스트레글러 한 대만 남아있었다. 처음엔 스트레글러를 노렸지만 곧 전방에 있는 두 번째 미그기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미그기의 후미에 붙어 발사한 기총은 적기의 엔진에 명중했다.

Fischer 대령은 떨어지는 미그기를 뒤로 하고 첫 번째 미그를 추격했다.

그는 한 손에는 스로틀을, 다른 한 손에는 조종간을 쥐고 적기를 향해 6대의 기관총을 모두 쏘아댔다. 미그기는 산산조각으로 찢겨졌고, 기체가 관통되며 파편이 떨어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적기의 파편은 Fischer 대령의 F-86을 향해 날아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수그렸다.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찢겨진 미그기의 위로 피할 것인가, 밑으로 피할 것인가?

그는 위를 택했다.

Fischer 대령은 그즈음 스로틀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엔진이 죽어가면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그의 어깨끈이 조여들었다.

압록강 하구까지 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았지만, F-86의 수면 불시착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Dreams of Aces>에서 이 상황을 묘사하며 전쟁포로가 된 과정을 설명한다.

“한 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석에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이었던 거죠. 살기 위해선 이젝트(비상탈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좌측 핸들을 잡고 캐노피를 제트스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측 핸들을 위로 당긴 채 조종석에 등을 밀착시켰습니다. 발판에 발을 넣고 트리거를 당겼죠. 당시 고도는 2천피트, 속도는 450노트였습니다.”

착지 후 그는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했던 중국인에 의해 러시아군으로 넘겨졌고, 곧 중공군에게로 인도됨으로써 전쟁포로가 되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중국은 그의 신분을 정치범으로 변경시켰고, 2년이 지난 1955년까지 석방하지 않았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의 땅을 다시 밟는 데는 52년이 걸렸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일 뿐입니다.” Fischer 대령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조종사가 자신의 첫 번째 임무에서 전사했을 수도 있죠.”

Carl G. Schneider 예비역 소장(우측에서 두 번째)과 Vic Azada 필리핀 예비역 대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9월 12일 20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였다. 재향군인회의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매년 우방 21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5천명의 참전용사들이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좌측면>



Harold Fischer 예비역 대령(좌측)이 55년 만에 재회한 Donald Krueger 당시 폭탄탑재사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면서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고요 속으로 돌아오다

이들은 미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돌아왔다. 55년 전 한국은 '고요한 아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곳이었다.

"이들 [참전용사들]의 한국 재방문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값진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들 8명의 영웅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으면서 말이죠." Stephen Sargeant 소장이 말한다. Sargeant 장군은 현재 뉴멕시코주 Kirtland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공군 작전 시험 및 평가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Sargeant 장군은 이들 중 여러 명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거행된 미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행사들에 이들을 초청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사의(謝意)를 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루어놓은 공군의 위대한 위상과 전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역 미 공군 장병들도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2만 4천2백 명의 미국 참전용사들이 대한민

국을 다녀갔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전우를 잃었지만 또 다른 우정이 싹트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만들어진 곳이다.

"한 차례의 방문만으로는 마음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이들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집필하는 John Sullivan 씨가 말한다. "그들은 젊은 청년이었을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곳, 전우를 잃은 곳으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게 헛된 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고 싶은 거죠."

2007년 9월 일주일 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Fischer 대령은 등에 Blood Chit 메시지가 새겨진 잠바를 가끔씩 입고 나왔다. Blood Chit이란 격추된 조종사가 지역주민에게 우군진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트다. 그는 인디언족이 독수리 깃을 꼬고 다니는 것처럼 무한한 자부심과 함께 이 Blood Chit을 입고 다녔다.

이들은 한국에서 오산 공군기지 등 몇 군데의 주한미군 기지들을 방문했다. 과거 오산기지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출격했던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공군후배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날 미 공군장병들은 과거 한국전 당시에 비해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그 때 켄셋식 간이 건물에서 생활했어요." 전쟁 당시 소위였던 Aldrin 대령이 회상한다. "각자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책상, 침대 같은 게 있었죠."

이들 8명은 방문 간 여러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 임했고, 제방한 사업 담당인 박래혁 해외참전부장도 만났다.

“오늘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래혁 씨가 말한다.

이들은 이처럼 성장한 대한민국을 직접 보면서 반세기 전 자신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피를 흘리고, 친구들을 보내며, Fischer 대령의 경우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수호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이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아무런 대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1952년 당시 기억나는 건 파괴, 황폐,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니다.” Cleveland 장군이 말한다. “물론 그 사이 한국이 이룩한 발전에 대해서는 듣고 읽으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정말 놀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제발전도 당연히 그랬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들에게서 나타난 자신감과 결의였습니다.”

“50년 전 제가 이러한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사실, 거대한 해변의 모래 한 줌 정도로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실에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지난 수십 년간 묻혀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고 한다.

“오래간만에 전우들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가 누구였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Pete Carpenter 예비역 대령이 말한다. “그렇지만 당시 한국이란 곳이 얼마나 황폐한 곳이었는지,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생활했는지도 생각나더군요. 물론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여러 기념비를 방문하면서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F-80 조종사였던 Carpenter 대령이 말한다.

Fischer 대령이 자신의 26층 고급호텔방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본다. 그는 관절염 때문에 부어오른 손가락 마디와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창틀을 잡는다. 한때 불에 탄 폐허였던 서울시가 지금은 여름비를 맞는 꽃처럼 번성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 가려 한국전쟁은 흔히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Fischer 대령과 다른 7명의 조종사들에게 한국전쟁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나라에서 싸운 전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4

10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Harold Fischer 예비역 대령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는 미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다른 한국전 참전 조종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



Hot SKETCH

참모총장, 신년지휘비행

참모총장은 1월 8일,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로 신년지휘비행을 실시하였다.

'현장중심의 지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날 비행은 새해를 맞아 참모총장이 직접 F-15K의 전력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조종사 및 정비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모총장은 11비 122대대를 방문하여 임무현황 브리핑을 받고 1시간여 동안 4기 편대를 지휘하였으며, 동해안과 중동부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서 F-15K의 공대공, 공대지 공격능력과 저고도 침투능력을 점검하는 등 공군 최선에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확인하였다.

참모총장은 지휘비행을 마친 후, 관계요원들에게 "새해에도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들 모두 'Soaring Eagle Project'에 적극 동참하여 독수리처럼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경쟁력을 갖춘 공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의 지휘비행에는 2005년에 F-15K 최초 인수임무를 수행했던 이영수 중령(공사 38기)이 함께 탑승, 눈길을 끌었다.



◎ 美 공군 교육사령관 예방

참모총장은 1월 18일, 아시아 지역(일본, 호주, 한국 등)을 순방 중인 美 공군 교육사령관 William R. Looney(3세) 대장의 예방을 받고 공통 관심사에 관하여 환담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BSC체계 전문가로 알려진 Looney 대장에게 우리 공군의 업무혁신 노력을 설명하고 그의 조언을 청취하였다. 또한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에 美 우주교육과정의 문호를 확대·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Looney 대장은 현재 美 국방성이 심의하고 있는 우주교육에 대한 개방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답한 후, 20세기가 공중을 지배하는 자의 것이었다면 21세기는 우주영역을 지배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인 만큼 우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임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1월 29일, 극동지역 주둔 예하부대(美5공군, 7공군) 초도순시를 위해 내한한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Carrol H. Chandler 대장을 접견하고 공통관심사에 관하여 환담하였다. 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美 공군의 우주분야 교육과정을 보다 많이 개방하여 선진화된 항공우주력 운용개념 및 기술·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는 등, 韓·美 공군의 우호증진과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순시

참모총장은 1월 22일, 제5전술공수비행단을 방문하여 정비현장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금년도 우리 공군의 키워드인 경쟁력은 '항상 최초가 아니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해안을 갖고 고착화된 관념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끊임없이 시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5전비의 역할 중대가 요구되는 바, 새롭게 비전을 창조하고 후배들에게 그 비전을 전수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여 공군 경쟁력 확보를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日 방위성 정보본부장 예방

참모총장은 1월 17일, 계룡대를 방문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 MUKUNOKI, 육) 중장의 예방을 받고 상호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참모총장은 오랜 우방인 양국이 지역 평화에 더 크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인적 교류의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향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 LIG 넥스원 사장 접견

참모총장은 1월 24일, 취임 인사차 공군본부를 방문한 방산업체 LIG 넥스원 이효구 사장을 접견하였다. 참모총장은 이날 환담을 통해, 레이더, 지휘통제·통신, 유도무기, 수중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성과를 이룬 LIG 넥스원이 그동안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항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군/LIG 넥스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LIG 넥스원이 보유한 기술력이 공군이 추구하고 있는 항공우주력 건설을 비롯한 한국군 전투력 증강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전국 공군교회 성도, 서해안 유류방제작업 봉사활동 참여

1월 19일, 전국의 공군교회 성도 500여 명은 지난 12월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에서 유류방제작업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는 공군 군종목사단(단장 문용만 목사)의 주관으로 현역 장병은 물론 군가족, 예비역,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 등 전국의 공군교회 교인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교인들이 모은 500만원의 성금도 함께 전달했다.



◎ 제1전투비행단,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가져

제1전투비행단은 지난 1월 15일, 부대인근 불우이웃과 함께 부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기지교회에서 부대 장병과 군 가족 2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성금으로 연탄 1,200장을 마련하여 부대인근 독거노인과 몸이 불편한 이웃 6명에게 200장씩 난방용 연탄을 전달하였다.



◎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군사훈련 동기부여 모음집 발간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일반학교관실에서는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훈련 장병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군사훈련 동기부여 모음집 - 마음을 움직여라'를 발간하였다.



◎ 군수사령부 82항공정비창 기관공장, KF-16 엔진제작사와 기술전수 토론

군수사령부 82항공정비창 기관공장은 1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KF-16 엔진 창정비기술과 품질보증능력 향상을 위하여, 엔진제작사인 Pratt & Whitney사 전문교관과 기술전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기관공장은 KF-16 엔진 창정비 생산능력을 3배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영률 향상에 기여하여 청와대로부터 혁신부서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금번 토론회를 통하여 생산능력 확대와 신뢰받는 품질보증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 February



◎ 남부전투사령부, 「공군 인적과실 방지 대토론회」 개최

남부전투사령부에서는 1월 15일 공군 전 비행단 항공기 정비분야 실무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정비 인적과실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군 인적과실 방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상안전 사고방지를 위해 주요 인적과실과 관련된 사고사례를 분석·전파하고, 인적과실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방지대책을 모색함으로써 2008년을 “공군 무사고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심도 높은 토론을 펼쳤다.



◎ 제1전투비행단, 대민 의료지원 실시

1월 9일, 제1전투비행단 소속 항공의무전대 군의관들은 광산구 보건소와 협조하여 부대인근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의 집’을 찾아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의료 지원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몸이 불편한 30여 명의 원생들에게 유행성 독감과 기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사령부, 경상대 NURI 사업단 병영체험 캠프 개최

교육사령부에서는 1월 14일~16일 경상대학교 NURI 사업단 42명을 대상으로 공군 병영체험 캠프를 열었다. 경상대학교 농생명학부, 생명과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이번 공군 병영체험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제식, 유격, 화생방 등의 주요 훈련과 독도를 통한 역사안보교육 등 공군 장병이 받는 주요 훈련들을 직접 체험하였다.



◎ 제3훈련비행단, HI-TAXI 이색 시무식

1월 2일, 제3훈련비행단장은 신분별 대표 장병 15명과 KT-1 항공기로 지상 활주를 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단장도 신분별 대표 장병 15명과 신년 비행 무운을 기원하는 KT-1 탑승 체험을 하며 주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파키스탄 공군 현물 실사단, 제3훈련비행단 방문

1월 16일, 제3훈련비행단에서는 T-37 항공기 잉여품 구매를 위한 파키스탄 공군 현물 실사단이 방문하였다. 이날 우리 3훈련비행단을 방문한 파키스탄 공군 군수참모부장(소장 Muhammad yousaf) 등 3명은 도착 후 단장을 예방하고 41보급창 사천파견대 및 A지구 H/G를 방문, 전시된 엔진을 둘러 본 후 KAI를 견학하였다.



◎ 제5전술공수비행단 헌병대대, 친절봉사 교육

1월 24일, 제5전술공수비행단 헌병대대는 외래강사를 초청, 소속 장병들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병들에게 친절,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친근한 공군상을 확립하고 장병들의 인성교육 및 자기계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 웰 아카데미 어석수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 서울영어마을 학생, 제15훈련비행단 부대견학

1월 10일, 24일 양일간 서울 영어마을 풍납캠프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제15훈련비행단을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조종사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공군 조종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KA-1 항공기 및 발칸, 장갑차, 제독차 등 지상장비를 견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공군 장병들과 함께 모형항공기를 만들어 직접 날려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제15훈련비행단, 조종사 희망 학생 항공기 탑승 체험

1월 15일, 조종사가 꿈인 영천중학교 1학년 서상민 학생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제15훈련비행단은 C-130 항공기 탑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상민 군은 일일 조종사로서 255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브리핑을 받은 뒤, 멘토조종사와 함께 탐색구조훈련에 동참하였다. 이날 255대대는 임무를 마친 서상민 군을 명예대대원으로 임명하였다.

2008 February



◎ 제16전투비행단, 경북항공고 합의서 체결

1월 15일, 제16전투비행단은 지역 교육발전과 우수 항공 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항공고등학교(경북 영주시 소재)와 비상 활주로 상공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경북항공고등학교의 실습 교육시 공군 영주비상 활주로 상공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주 2회 경비행기를 이용한 이·착륙 실습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제2방공포병여단 528방공포대, 해돋이 행사

제2방공포병여단 528방공포대는 2008년 1월 1일 해돋이 축제를 실시하였다. 생활관 전 병사들은 해돋이를 감상하며 소원을 빌고, 군가와 함성을 지르며 새해 첫 아침을 시작하였다.



◎ 제18전투비행단, 국군TV 「군! 체험현장」 촬영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국군TV에서 방영하는 「군! 체험현장」을 촬영하였다(2월 1일 방영). 군장병인 남자친구를 찾아 온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의 힘들지만 보람된 군생활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항공기 무기 정비체험과 장갑차 탑승 및 봉사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촬영을 통해 참가자들은 군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 제17전투비행단, 1차 전투태세 훈련

1월 14일~16일, 2박 3일 동안 제17전투비행단에서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작전지휘태세 종합검열을 대비하여 전시 작전수행계획 점검 및 전시 작전체제 종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전 장병의 비상소집 발령을 시작으로 적 SCUD 공습 및 재난통제 훈련, 야간기지방호교육 등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전시 기지생존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다.

사막의 WBC

(World Baseball Classic)

대위 허 혁 | 제53항공수송단

이곳에 파병오기 두 달 전, 미국에서 World Baseball Classic이 열렸다.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본토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실력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 카타르파견대에 근무하던 장교 4명은 한·미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하자 함께 근무하던 미국 장병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을 정도로 파병장병들에게도 WBC는 많은 즐거움을 주었다고 한다. 갑자기 웬 WBC 이야기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 같다. 하긴 사막과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와 WBC의 관계를 연상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WBC 감동 재연의 목표

이 곳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개월간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들만의 WBC가 열렸다. 사실 이곳의 소프트볼리그를 WBC와 비교할 수 있겠냐 싶지만 다국적군 육·해·공군이 리그에 참여하는데 WBC라고 부르는 게 한편 무리도 아니지 않은가?

이 곳의 스포츠 리그는 크게 4가지인데 축구, 배구, 농구, 소프트볼이 그것이다.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야구를 좋아했기에 그 열망이 간절했던 때 소프트볼리그가 열린다는 낭보가 찾아들었다. 서둘러, 참가선수를 확정한 다이만 부대 야구팀은 총 15개 팀이 참가하게 되는 아메리칸리그(8개)와 내셔널리그(7개)에서 내셔널리그에 속하게 되었다.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TF18(미 육군 파견부대), 일본 항공자위대, TF11(미육군 파견부대)과의 경기에서 3연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다. 3연패에



1



2



3

1. 기지 안에 있는 소프트볼 경기장
2. 최고의 화합과 단결심으로 구성된 다이만부대 야구팀
3. 투수로 활약한 필자

빠지자 참가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슬슬 한 사람씩 빠져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우리의 목표는 “한번만 이겨보자”로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겨보자는 마음이 승리에 대한 염원이었을까? 네번째 경기부터 우리는 진가를 발휘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패배를 주었던 TF18과의 재시합에서 9:6 승리를 시작으로 내리 4연승을 거두는 짜릿한 순간을 맞이했다.

3연패 뒤 4연승으로 결승리그 진출!

이제, 우리는 초반 3연패를 딛고, 4연승으로 당당히 결승 토너먼트에 합류했다. 결승 토너먼트 8강전의 상대는 아메리칸 리그 1위 팀 미 헌병대대. 전승으로 올라온 미 공군 헌병대대는 수비와 타격 모두 안정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우

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강팀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리그 4강으로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데 만족해하며 우리의 WBC는 끝이 났다.

이번 소프트볼 경기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계임을 치르면서 주둔 다국적군들과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경기 특성상 야간에만 치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고 내실있게 준비하여 선수구성, 게임계획, 경기, 그리고 응원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한 다이만부대 장병들의 단결심과 화합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더 큰 보람을 찾고 싶다.

운동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인식된 다이만부대 장병의 단결심과 화합, 그리고 도전정신은 매회 임무마다 대한민국 파병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성공적인 임무완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다이만부대 소프트볼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사막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이만부대 장병들에게 큰 함성을 보낸다.

“다이만! 아자, 아자, 아자!” 



전문하사를 만나다

- 유급지원병제도에 따라 첫 하사 배출
- 병장 만기 전역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

글·사진 웹진「공감」편집실

다른 것은 몰라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굳게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지적 자부심'이다. 그런 '지적 자부심'을 지독하게 고문해온 적이 않은 경험들 때문에 낯선 단어,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면 이마에는 늘 자잘한 땀방울들이 순식간에 솟아오른다. '전문하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물음표 말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앨빈 토플러 덕분에 '야금 및 실패 분석 소송 컨설턴트' 또는 '수확 후 원예사*'라는 별난 명칭도 낯설지 않았는데, 이걸 뭐지??

이 글의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필시 대다수가 동일한 물음표가, 그것도 선명하고도 또렷한 모양으로 떠올랐으리라 생각한다. '전문하사'는 유급지원병제도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다시 수료한 후 진급한 하사를 가리킨다.

공군에서 처음으로 1월 9일,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전문하사가 탄생한다는 소식에 거두절미하고 내뱉은 단 한 마디, "만나러 가자!"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어떤 교육을 받는지 등 궁금한 것이 샘솟았지만,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왜?'였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국방부 시계 바늘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속 모터를 달고 싶을 병사들의 눈에 복무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감쪽한(?) 생각을 한 전우들은 정말 특별하

*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중.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닐봉지에 담긴 야채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의 미세 구멍이 필요한지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

게 비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전문하사들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특기번호 뒤에는 Special을 의미하는 'S'가 붙는다). 정말 복무기간을 통해서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원의 전역을 보완한다는 국방개혁 추진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꼭, 남고 싶습니다!”를 외쳤나?

신고합니다!

제11전투비행단에서 신입 전문하사 세 명을 만났다. 바로 전날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도무지 만기 전역하는 병장의 여유롭고 다소 흥분한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짧은 머리에 다소 긴장한 표정. 마치 부사관이 되기 위한 기나긴 훈련과정을 마치고 부대에 처음 도착한 신입 하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Q : 병장에서 하사로 계급장을 바꾸어 단 소감이 어떤가요?

황재국 하사(이하 황 하사)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2주간 교육사에서 교육을 마치고 지난 주말에 올라왔는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것 말고는 아직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어제 막 부대에 배속 받아서 일을 시작한 막내 이병만 저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다들 웃기부터 합니다.

장상민 하사(이하 장 하사) : 평소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던 동료 병사들이 깍듯이 경례를 붙이는 모습이 제일 어색합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구요.

신화범 하사(이하 신 하사) : 너무 긴장해서 아까 신고할 때 제가 신고할 차례인데 순서를 잊어서 한동안 적막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교육 받으러 가기 전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는데,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응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Q : 이런 말을 먼저 꺼내서 미안한데, 도대체 왜 유급지원병제를 신청해서 전문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

황 하사 : 사실 병사로 입대하기 전에 항공기를 정비하는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 부사관 시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못 봐서인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병으로 지원해서 공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항공기 정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절반 정도는 이룬 셈입니다. 그러던 차에 복무기간을 연장해서 부사관으로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바로 나를 위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원했습니다.

장 하사 : 다들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군복무를 마치면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전공 공부를 보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보다는 하사로 일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학원에 가서 영어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이후를 준비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학원비 대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요.

신 하사 : 저는 10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복학할 때 학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집에다 손을 벌리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120만원 정도 받을 월급 중에서 100만원씩 저축해서 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Q : 다들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군요. 이제 궁금증이 조금 풀리네요. 자신의 부서로 돌아가서 맡을 일에는 차이가 있나요?

황 하사 : 저는 비상시 조종사의 생명을 보장하는 사출시스템을 정비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그동안은 정비 보조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독 아래서 단순 정비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보조하던 그 업무를 직접 책임지게 됩니다. 부담감은 조금 있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신 하사 : 사실 그동안 정비 보조업무를 해왔지만, 그냥 '정비병' 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대로 된 '정비사'입니다.

- Q** : 앞으로 병사가 아닌 전문하사로서 각자 10개월 또는 1년 간 군생활을 할텐데,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황 하사** :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집에서 출퇴근할 예정이지만, 숙소도 영내로 다시 옮겨서 시간을 아껴가며 생활할 겁니다.
- 장 하사** :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지금까지 해 온 군생활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결코 길지 않은 기간, 전문하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 하사** : 유급지원병제도를 통해 임관한 전문하사 1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병사 시절의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황재국, 신화범, 장상민 하사

이들 세 명의 전문하사가 어색함을 털어버리고 자리를 잡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군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훈련을 마치자마자 바로 일선에 뛰어드는 다른 하사와는 주변에서 거는 기대치가 다를 것임에 분명하다. 개개인의 목표가 서로 다를지라도 이들이 걸어갈 길,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들이 든든히 지켜낼 자리들은 굳이 국방개혁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지 않더라도, 동료와 가족은 물론 군과 사회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한 해의 시작을 새로운 각오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 2008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하리라 생각한다. **AP**

여기서 잠깐!

유급지원병제도가 궁금하신 분을 위해...

유급지원병이란 병사로 입대해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임관해서 일정 기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유급지원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군 복무 중 유급지원병을 지원해서 전문하사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기간을 선택적으로 복무하는 '유형 1'과 입대하기 전에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해 총 36개월(공군)을 복무하는 유급지원병 '유형 2' 등이 있다. '유형 1'은 정비병이나 레이더병 등 전투/기술 분야에 대한 숙련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발하고, '유형 2'는 국방개혁에 따라 확대 도입할 첨단장비를 운용할 전문직위를 선발할 예정이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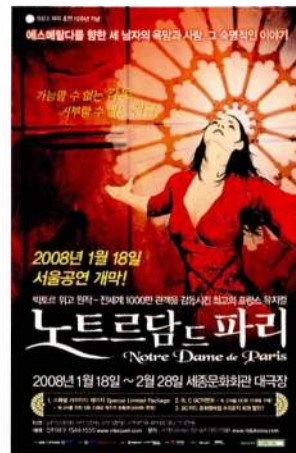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죄인일 수 없다”

소설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가 뮤지컬로 공연된다. 지난 10년간 전세계 1,000만명이 이 뮤지컬을 봤고 음반만 1,100만장이 팔렸다. 이번 공연은 무대세트, 조명, 음향, 의상 등 오리지널 공연 무대로 감상할 수 있다. 바다, 김법래, 이정열 등 실력파 가수들이 출연해 노래의 감동을 더한다.

브로드웨이 뮤지컬과는 달리, 7명의 가수가 대사 없이 54곡의 노래로만 극을 이끌어내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주인공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사랑을 노래한 '벨(Belle)'은 프랑스 차트에서 44주 동안 1위에 머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위대한 소설가의 작품인 만큼 줄거리도 탄탄하다. 빅토르 위고가 원작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숙명인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죄인일 수 없다는 것.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16세 집시 에스메랄다에 대한 주교 프롤로의 고뇌하는 욕망, 근위대장 페뷔스의 정열적인 사랑과 배신, 모든 것을 초월한 꿈추 콰지모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휴머니티를 노래한다.

꿈추 콰지모도의 온몸으로 울리는 영혼의 종소리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졸업과 입학 등 유난히 축하할 일이 많은 2월 사랑의 선물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공연 : <서울> 1월 18일~2월 28일 평일 8시(월 공연 없음), 주말 2시, 7시/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성남> 3월 15일~4월 18일/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예정)

가격 : VIP석 13만원, R석 12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C석 4만원

※ 공군장병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휴가증 지참시 10% 할인(인터파크 콜센터 1544-1555로 공군장병확인 후 사전예매)

홈페이지 : www.ndp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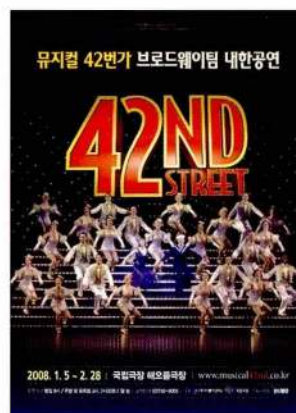
브로드웨이의 중심 42번가 드디어 한국에 착륙! 원조의 화려한 무대 뮤지컬 <42번가>

브로드웨이의 중심인 42번가에 무명의 뮤지컬 배우가 스타로 탄생한다. 아메리칸 드림이다. 실제로 여주인공 패기소여 역을 맡은 크리스틴 마틴이 시골마을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42번가 오디션을 보고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

한 소녀가 스타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좌절, 성공을 탭댄스로 표현하는데 특히 첫장면의 탭댄스가 압권이다. 배우들의 탭 소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커튼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정수를 보여준다.

싱크로나이즈드 댄스, 코인 댄스, 계단 탭 댄스 등 화려한 춤과 그 느낌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대장치가 브로드웨이에 가지 않고도 그곳의 다채로움을 그대로 맛보게 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도 음악에 웅장함을 더한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고향을 방문했던 기차표를 가지고 오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2월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고향도 다녀오고 뮤지컬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말자.



공연 : <서울> 1월 5일~2월 28일 평일 8시, 토 3시, 8시, 일 및 공휴일 2시, 7시/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대전> 3월 4일~9일/예술의 전당 <부산> 3월 13일~23일/문화회관

가격 : VIP석 13만원/R석 10만원/S석 8만원/A석 6만원/B석 4만원

홈페이지 : www.musical42nd.co.kr

숲속의 폭군 때까치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운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조류박사 현 준위의 Bird Alert 9

봄에 산행을 하다가 오솔길이나 등산로를 벗어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작은 새의 공격을 받고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개를 하고 옅은 파스텔 톤의 연초록 색 잎들이 손을 흔들며 우리의 발길을 유혹하지만 새들에게는 일 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예민한 번식기간이다.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는 새들이 자신의 둥지 근처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둥지 근처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조류가 있다. 덩치는 참새보다 약간 크지만 워낙 사나워서 둥지 주변은 물론이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다른 조류는 가차 없이 공격을 하여 몰아내기 때문에 거의 천적이 없으며 사람들에게도 매섭게 달려드는 숲속의 폭군 “때까치”이다.

봄이 되면 많은 새들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영역 주변 높은 나무 위에서 제각기 곱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작은 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새들의 교향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새들은 자신이 원하는 암컷이 주변에 나타나면 아주 고운 목소리로 온갖 노래 숨씨를 뿜내기 시작한다. 난폭하기로 유명한 때까치도 이

시기에는 목청을 가다듬고 아주 고운 목소리를 낸다. 아마 평소엔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던 거친 목소리로는 암컷을 유혹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듯하다.

시골 마을 주변이나 낮은 산에서 봄철에 수시로 볼 수 있는 때까치를 주변에 서식하는 큰 새들도 슬금슬금 피하곤 한다. 괜히 심기를 건드려 난폭한 이 새에게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때까치는 멀리서 보면 작은 종류의 많은 새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 새의 진면목을 알아차릴 수 있다. 커다란 멧금류보다 더 날카롭게 생긴 부리와 까맣고 긴 눈썹 속에 반짝하고 빛나는 매서운 눈,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을 것 같지 않은 발톱의 모양에서 날쌔게 솔개를 축소시켜 놓은 듯한 인상을 받는다. 예전에 그물에 걸려있는 이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살펴보다가 날카로운 부리에 물려서 살점이 뜯겨나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생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유유히 날아가던 때까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놀라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때로는 멧금류인 황조롱이에게도 겁없이 달려드는 새가 바로 작지만 강한 때까치이다.

때까치는 전국의 낮은 산이나 높은 산 어느 곳에서나 번식하고 북부의 번식 집단은 일부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월동하는 텃새이다.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북한 지역에 비해 흔히 눈에 띄는 편이다. 여름의 번식기에는 평지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겨울에는 남단 지역인 영남과 호남 지방, 특히 거제도와 제주도 등지에서는 전선이나 길가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은 대기 온난화 현상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충청남도의 해안 근처의 작은 숲 근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암수 또는 단독으로 생활하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겨울에는 평지에서 쉽게 눈에 띈다.

번식기에 세력권을 형성하는 다른 작은 새들과는 반대로 동물성 먹이가 결핍되는 가을과 겨울에 일정한 세력권을 확보하는 습성이 강하고, 겨울철의 서식지를 정하기 위해 초가을에 맹렬한 싸움을 시작하며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에는 높은 곳에서 노래를 시작해서 세력을 나타낸다. 이때 노래 소리를 듣고 달려드는 새와 맹렬하게 싸움을 하여 우열을 다

투고 이기면 그 지역 일대를 자기의 점유로 한다. 이 싸움에서 진 새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새로운 세력권을 확보한다.

번식을 할 때 둥지는 지상에서 1~6m 높이의 나뭇가지 위나 관목의 숲속에 있다. 마른 가지, 마른 풀, 나무껍질, 쉼, 짚, 풀의 뿌리와 줄기 등을 주로 이용하고, 기타 이끼류, 활엽수의 낙엽, 솜, 실, 휴지 등을 적은 양 사용하여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튼다. 둥지 안쪽에는 마른 이삭, 풀뿌리, 솔잎, 동물의 털, 새의 깃털 같은 것을 깐다. 둥지는 어른 두 주먹을 합쳐 놓은 정도의 크기이다. 새끼는 포란 후 14~15일이면 부화하고 그 후 14일 정도면 둥지를 떠난다. 주로 동물성 먹이를 먹으며, 작은 파충류와 곤충을 즐겨먹는다. 또한 쥐를 비롯한 작은 포유류와 참새는 물론 빠르기로 유명한 제비도 잡아먹는다.

이렇게 난폭하며 빠르고 주변의 천적이 없는 때까치지만 아주 취약한 약점이 있다. 잘 위장해 놓은 이 새의 둥지를 용



1 울타리 위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때까치 2 매서운 때까치의 부리 3 철조망에 꽃아 놓은 매뚜기 4 때까치의 발톱이 마치 매의 그것과 비슷하다.

케 찾아내어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양치 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한편으로는 멍청한 새이기도 하다. 숲을 다니다가 우연히 때까치의 둥지에서 다른 새의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때까치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해가며 나무에 올라가 둥지 속을 확인해 보았더니 그 둥지 속에는 때까치의 어린 새가 아닌 뾰꾸기의 새끼가 자라고 있었다. 뾰꾸기가 때까치의 둥지 속에 자신의 알을 낳아 놓았던 것을 때까치들이 모르고 자신의 새끼처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뾰꾸기들이 자신의 숙주로 붉은머리오목눈이와 종달새의 둥지를 이용하는 것은 가끔 보았지만 이렇게 난폭하기로 이름난 때까치의 둥지를 자신의 숙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의외였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도 사기꾼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대상은 ‘자신은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도 뾰꾸기는 이러한 지혜를 못된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은 아닐까? 뾰꾸기 새끼가 다 자라서 자신들의 품을 떠나 엄마 뾰꾸기를 따라갈 때 아마 내가 때까치에게 물린 후 멍하니 때까치의 날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나의 심정과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때까치는 난폭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새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이 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매뚜기나 개구리를 잡아서 탕자나무나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에 꽂아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철조망에 있는 가시에도 꽂아 놓기도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때까치의 장난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나중에 그러한 행동이 겨울에 먹이가 없을 때 양식으로 이용할 저장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삼 때까치의 준비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준비성 때문에 동물성 먹이가 전혀 없는 겨울에도 때까치가 활기찬 모습으로 상고대가 낀 차가운 나뭇가지에서, 그리고 전깃줄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까치는 트여진 공간에서 먹이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활주로 내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활주로나 유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나뭇가지에서 활주로 잔디 위에서 움직이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땅으로 내려와서 먹이를 잡아간다. 먹이를 잡으면 그곳에서 먹지를 앓고 주변의 나무로 날아 오른 후 여유 있게 먹곤 한다. 때까치는 평지에서는 활

동을 잘 하지 않고 숲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며 트여진 공간 주변에 잡목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

결국 이 새를 퇴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활주로 연장선이나 근처에 돌출되어 있는 잡목들이 없으면 이 새들은 절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새들이 둥지를 만들거나 먹이를 찾기 위하여 앉아 있을 만한 곳을 수시로 정리하는 것이다. 활주로 연장선 부근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멧비둘기를 비롯한 많은 조류의 서식처가 되며 대부분의 새들이 이런 조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새들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퇴치 장비를 가지고 몰아내거나 하는 것보다 새들의 유인 요소를 미리 알아내어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작지만 숲속의 폭군인 때까치는 주로 숲을 좋아하지만 가끔 먹이가 부족할 때 언제든지 활주로 주변에 진입할 수 있다. 어쩌다 다가올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늘 활주로 주변의 수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하면서도 조류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때까치가 활주로 주변이 아닌 푸른 숲속에서 작지만 강한 모습으로 그 면모를 과시하며 힘찬 날개를 펼치길 기대해 본다. 🌿



대나무에 지은 때까치의 둥지

2월의 공군 역사

자료정의 군역사기록관리단

- 2월 1일 ● C-400 항공기 해군으로부터 인수(2001)
- 2월 10일 ● F-86D 항공기 도입(1960)
- 2월 15일 ● 여자항공교육대 창설(1949)
공군기술고등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창설(1971)
- 2월 19일 ●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 GULF전 참전(1991)
- 2월 21일 ● 중국조종사 진보충 MIG-19기로 망명(1986)
- 2월 25일 ● 북한조종사 이웅평 대위 MIG-19기로 귀순(1983)

공군기술고등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창설(1971)

공군기술고등학교는 1971년 2월 15일, 공군간부학교(1969년 3월 1일 대전 기술교육단에서 창설)를 모태로 하여 개교하였다. 1960년대 중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부터 기술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기술하사관(부사관)의 전역희망자가 급증하여 1967년과 1968년에는 하사관 정원대비 약 30%까지 전역을 희망하게 되면서 장기복무 기술하사관 확보에 비상이 걸린 공군에서는 을종간부후보생(기술고등학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 진학이 곤란하고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자에게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고졸 학력을 부여하고 공군하사로 임용, 전문 기술분야에서 장기간 복무케 하여 전력증강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모집과정에서 만 15세 이상 17세까지의 소년을 군에 입대시켜 교육한다는 것은 당시 병역법에 저촉되었으며 고졸 학력을 부여하는 문제도 고등학교설치법에 위배된 바 정식고등학교로 설립을 하지 못하자 공군에서는 1969년 3월 1일 대전 기술교육단에 공군간부학교를 창설하여 1969년 5월 5일, 제1기 을종간부후보생 250명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공군간부학교를 둘러싼 법적문제들이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합의하에 해결되고, 1970년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공군간부학교는 공군기술고등학교로 개교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6년에는 항공과학분야 전문인력(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6월 26일 학교명칭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40기)는 최초로 여학생 15명을 선발하여 여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17기생들의 기술교육 장면

중국조종사 진보충 MIG-19기로 망명(1986)

1986년 2월 21일 오후 14:26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적기의 공습이 예상된다는 긴박한 소식이 실재상황임을 강조하며 다급하게 퍼져나갔다. 나쁜 오후의 정적을 즐기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갑작스런 실재상황에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재상황임을 강조하던 경보는 중국공군 소속 MIG-19 전투기의 귀순시도로 밝혀지면서 14:40분 해제되었다.

이날 귀순한 MIG-19기 조종사는 중국공군 제1사단 4정찰단 소속의 진보충으로 13:50분경 심양지역 상공에서 비행훈련 중 편대를 이탈하여 기수를 남쪽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 공군은 14:12분경 평남의 대화도 상공 부근에서 급히 남하하는 적성항공기를 포착하여 예의 주시하던 중 우리 영공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서해지역에 초계 중이던 전력을 투입하여 귀순의사를 확인 후 수원기지에 안착시켰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중국(대만)으로 망명한 진보충 조종사는 항공기를 이용한 6번째의 중국인 귀순사례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대만 공군에서 상교(대령)로 근무 중이다. ㉠



수원기지에 안착한 진보충 조종사가 마중 나온 우리 측 장병들에게 승리의 V자를 흔들며 보이고 있다.



산 위의 부대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 양수장 관리병, 고태혁 병장

글·사진 상병 서명환 | 중앙전산소



산 위의 부대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부대에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가정하자. 그곳에 있는 장병들은 먹을 물, 씻을 물도 없고 밥 지을 물, 설거지할 물도 없다.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할 것이다.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부대에는 물이 특히 중요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물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대에는 물을 끌어올려주는 양수장을 산중턱에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수장에는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곳에도 공군 병사가 있대니! 양수장 작동상태 점검을 하는 병사, 양수장 관리병 ‘고태혁 병장’을 만나보자.

30단에서 부대까지 3시간. 처음에는 고속도로로 해서 일사천리로 달려왔지만 부대 입구에서 산 위에 있는 대대까지 들어가는 길이 제법 만만찮다. 산 입구에 도착하여 부대를 출입하는 탐차에 체인을 단단히 감은 뒤 눈발을 20분 동안 올라가니 산중턱쯤에 한 건물이 보인다. 다른 이들은 찾아볼 수 없고 병사 한 명이 마중나와 있었을 뿐인데 그가 바로 양수장 관리병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곳에 오기 전 동료들이 산속이라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 쌓여 엄청 춥다면서 내복에 야상외피, 내피, 거기다 목도리까지 꼭 하고 가랬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바람이 살을 에는 듯 하다. 장갑을 두 겹이나 껴는데도 손끝이 매우 시리다. 고태혁 병장은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꽤나 기다린 듯한데,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견디고 있었다니 혼자 생활하는 양수장 관리병의 인내심이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혹독한 추위도 어쩌면 양수장 관리병에게는 사소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 지키는 공군, 고 병장

고태혁 병장의 방으로 들어가자 방바닥이 따뜻하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보일러를 틀어놓았다고 한다. 의외로 시설은 잘 되어 있다.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책상, TV 등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갖추어져 있었다. 꼭 고시원에 들어온 느낌이다.

“이곳에 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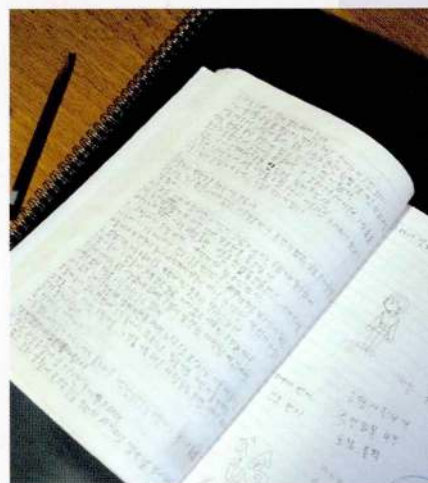
부대에서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감병인만큼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 병장의 하루일과는 동절기인 요즘, 기상시간인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과 점심 두 번, 산 위의 부대에서 전화가 오면 적정수치를 맞추기 위해 양수장 기계를 작동시킨다. 이외에도 수시로 기계를 정비한다. 다른 일과를 정리하고 저녁에 양수장 주변을 순찰하면 하루일과가 끝이 난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고충도 많다. 혼자서 생활하니 빨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이 제일 크다.

하루 종일, 아니 몇 달 동안, 길게 보면 군생활의 대부분을 혼자 지낸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느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여름날을 한 번 상상해보자. 산 위에 부대가 있다 보니 번개를 맞을 확률이 크고 만약 번개를 맞으면 모든 전자기기들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뇌우경보가 발령되면 고 병장은 산중턱에 있는 양수장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끊는다. 밤이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완전 암흑천지. 어둠속에서 홀로 방안에 있는 고 병장은 물건들을 촉각, 청각에만 의존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 일 뇌우경보가 발령되는 장마기간에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혼자 있어 외롭지만 그림이라는 저의 친구가 있어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생활해야 하는 직감병의 고충을 알기에 부대에서 주기적으로 병사를 교대하는 편인데 고 병장은 일병 때부터 전역을 한달 앞둔 지금까지 양수장 관리병을 해왔다고 한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고 병장의 뜻에 따라 주임원사님이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자기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이겨내며 생활한다는 것은 어쩌면 성격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고 병장은 아무래도 양수장 관리병이 적성(?)에 맞는가 보다.

“부대원들이 제가 올려준 물로 생활하는 걸 생각할 때 제일 보람칩니다.” 산 정상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부대에서 떨어져 혼자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그걸 당당히 해내고 보람차다는 고태혁 병장.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대표적인 공군 장병의 하나다. ‘물을 지키는 공군’ 고 병장이 있기에 산 위의 부대는 지금도 ‘근무 중 이상 무’이다. 



군 복무기간을 ‘변화와 성장의 자기계발기간’으로

-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대학학점 · 자격증 취득제도 -

공군은 군조직에 필요한 핵심학문(우주, 레이더, 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석/박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연계하여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대를 지식과 학습 공간으로 만들어 군 복무기간을 ‘변화와 성장의 자기계발기간’이 되도록 하여 「작지만 강한 공군을 이끌 경쟁력 있는 공군인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중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히 대학학점 취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제공: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교육처

군·학 협약 체결

예원예술대학교는 2007년 12월 18일부로 군·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무중인 군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알찬 시간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3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군에서도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군의 직무수행능력과 군사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군사교육만으로는 함양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군에서는 다양한 민·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학습하는 병영문화조성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센터와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사이버 지식정보방, 학·군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지원 등 군 복무 장병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지원체계, 즉 군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 교육훈련(교육사 특기교육 등) 수료시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와 군 복무 중 사이버 강좌 수강을 통하여 해당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군 생활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내려는 장병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이번 호에서는 군 복무 중의 학점 취득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기타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대학학점 취득

공군은 사이버 지식정보방 설치를 통한 군 e-러닝 포털서비스체계 구축·운영으로 군 복무 중 On-line을 통해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무료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해 어학학습 등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은 병사 7.5명당 1대를 목표로 현재 333개소에 3,022대가 설치되는 등 85%의 구축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원가입자만해도 공군병사의 95%에 이르고 있다.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 공군 인가과정 : 병사 16개 과정(기술학교 5, 정보통신학교 7, 군수학교 4)
- 최대 학점인정 : 개인별 최대 3학점
- ※ 교육사령부 12개 병사 특기교육 과정에 대하여 추가 확대 예정

•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 방 법 : 사이버 지식정보방 e-러닝 시스템을 통한 대학 사이버강좌 수강
- 학 점 : 연간 최대 6학점 이내 취득(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 적용시기 : 2007년 하반기부터 6개 대학 시범 운영 중이며 지속 확대 예정
- ※ 현재 국방부에서 전국 11개 대학과 합의서 체결이 완료(07년 11월)되었으며 공군에서는 공군과 이미 합의서를 체결한 43개 대학과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군 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림>에서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장병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 복무 중 시간제 수업을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한 후 전문학사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수업료에 대한 할인혜택이 주어짐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공군은 부사관 '군사 전문학사' 학위 취득 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학점인정을 통하여 2009년부터 학위취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상호협력 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정보교류, 공동 학술연구 등 수행)하였다. 특히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와의 합의서 체결은 공군이 최초이며, 기타 자격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조기 획득 등 다양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군 복무기간을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삼아보자. 

www.yewon.ac.kr

국가에 대한 봉사 사회 봉사 실현으로 군장병 사회복지사 2급과정

사회복지는 당신의 손이자 발이며 손과 발을 연결하는 사랑입니다.

Loving Hands



교육과정

- 군복무 중 무리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통해 일정학점 취득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
- 인적자원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강의 진행
- 수업수입금으로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지원
- 군장병 전담 상담원 배치 및 장학금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지원자격

- 군장병으로 고졸학력 이상인 자
- 군장병으로 고졸학력 이상인 자
- 군장병으로 고졸학력 이상인 자

특징

- 군장병 및 그 가족에게 장학금 지원
- 군장병 및 그 가족에게 장학금 지원
- 군장병 및 그 가족에게 장학금 지원

학점인정

- 군복무 중 무리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통해 일정학점 취득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
- 군장병 전담 상담원 배치 및 장학금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 군장병 및 가족의 정서안정 지원

문의처 063-253-1516 (상담전화) 063-253-1515, 7071-2, 7075

팩스 063-253-7073

• 본 대학은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군장병 여러분의 전역 후 사회복지사로서의 뜨거운 열정, 예원예술대학교가 더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YEWON ARTS UNIVERSITY

〈그림〉 예원예술대학교의 사회복지사 2급과정 안내 포스터

미래의 문맹은 눈깔 없는 사슴이다

이미도의 신간 산문집
〈나의 영아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에서 발췌한 삽화
© huns.com

수년 전, 디자인으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전문인만큼 편집자들이 솔깃해할 강연 내용을 찾던 저는 마침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신현림 씨의 글을 접하게 됐지요. 그가 쓴 《슬픔도 오리지널이 있다》의 머리말에서 반갑게도 시선을 사로잡는 인용문을 발견했고요, 주저하지 않고 제 강연 제목으로 뽑았지요.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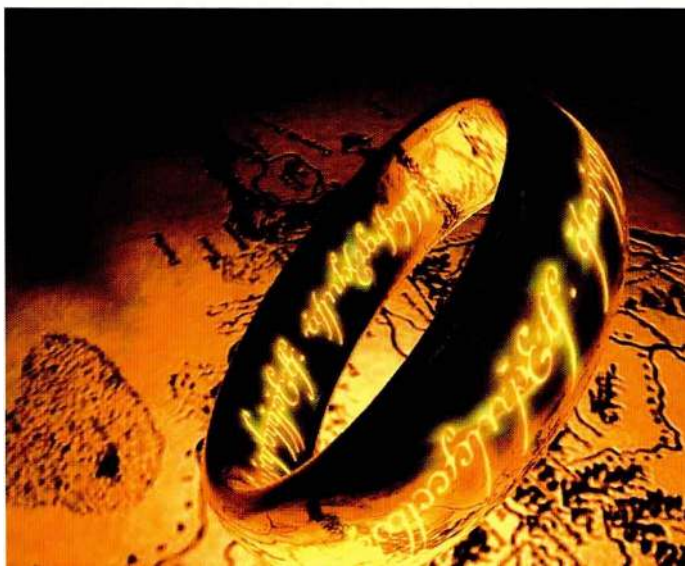
The illiterate of the future is not one that can't read
but one that can't read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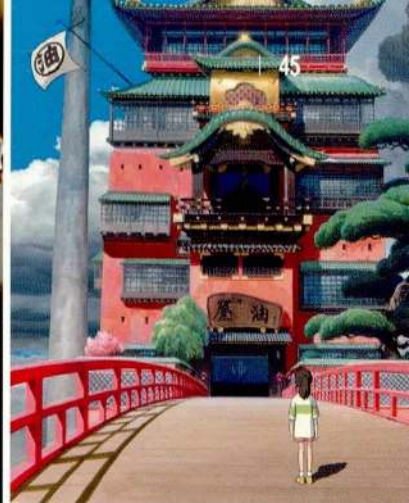
‘이미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문맹자’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헝가리 출신 사진작가인 라슬로 모홀리 나지 László Moholy-Nagy입니다. 바우하우스 스쿨Bauhouse School에서 교수로도 재직하신 분인데요, 그는 한 컷의 사진이 표현하는 메시지의 강렬함이랄까, 사진 속 이미지가 파급하는 위력이 얼마나 크고 강렬한지를 설파했던 것이지요. 그때로부터 장장 8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미래의 문맹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에 등장한 디지털 공룡이 지구촌의 스크린을 초토화시켰을 때 셀본이 빠른 사람들은 〈쥬라기 공원〉 한 편이 벌어들이는 수입(북미에서만 3억 5천만 달러)이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파는 수 천대의 차 값

과 맞먹는다고 분석했지요. 원작소설을 쓴 마이클 크라이튼의 한 줄짜리 상상력이 일구어낸 천문학적 위업이 아닐 수 없지요. 그때로부터 강산이 한번 변하였고, 피터 잭슨 감독이 만든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북미지역에서만 흥행 수입이 총 12억 달러입니다.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이 쓴 글로벌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 시리즈는 책으로만 3조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영상 산업을 포함해 모든 부가 산업이 합작해낸 가치까지 더하자면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흑자는 디지털 기술이 이들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 포터〉 시리즈가 디지털 기술 덕분에 완성도가 더 높아졌고, 그 덕에 흥행에서도





더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수많은 3D 애니메이션의 성공 또한 디지털 기술에 지고 있는 빛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언젠가는 실사영화인지, 디지털 영화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드웨어는 무엇 일까요? 저는 인간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를 저는 존경합니다. 상상력에 관한 한 분명 그는 천재이지요. 그가 감독 겸 제작자로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를 매료시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캐릭터와 소재를 빌려온 영화이지요. 그렇다고는 해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광채를 발하지 않았다면 걸작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기 힘들었겠지요.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의 명물 판다 곰은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잠꾸러기인데다가 먹보지요. 식당에서 면발을 뽑는 평범한 판다 곰 ‘포백 블랙’가 호랑이권법 고수안젤리나 홀리, 원숭이권법 고수성룡, 독사권법 고수루시 리우, 사마귀권법 고수, 그리고 학권법의 고수를 능가하는 쿵푸 마스터로 거듭나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다는 발상이 사뭇 흥미롭지 않습니까? ‘밑바닥 신세 같은 무명에서 곱발바닥 영웅으로 환골탈태’from zero to hero’ 하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창조한 <쿵푸 팬더>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진정 표표하고 찬란하지요. 판다 곰이 마치 ‘표우-표우’ 기합을 내뿜으며 적에게 필살기를 날리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는지요. <슈렉> 시리즈를 창조한 드림웍스가 새로운 시리즈물로 기획한 영화인만큼 그들의 상상력의 끝이 어디일지, 문득 궁금해 집니다.

일본에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다면 미국에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Pixar Animation Studio가 있지요. 디즈니와 합병

하기 전까지, 이 스튜디오의 모회사인 애플 컴퓨터의 회장이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른다고 해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거는 경영인이자, 혈관 속에조차 상상력의 피가 흐를 것만 같은 그가 ‘꿈꾸기’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역설하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의 한 소절입니다.

“나를 몽상가라 할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꿈꾸는 사람이 어디 나뿐일까요!”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는 <권력의 이동 Power Shift>에서 미래의 권력자는 정보를 선점하는 자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소유할 권력도 정보를 선점하는 자의 권력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상상력이 곧 정보이고 권력인 세상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겠지요.

[눈깔 없는 사슴이란]

미래의 문맹은 왜 눈깔 없는 사슴인지 말씀드릴 차례가 됐군요. 좀 생뚱맞은 발상이다 싶어도 너그럽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될 테니까요! ‘눈깔 없는 사슴’이 영어로 뭘까요? 사슴은 영어로 Deer니까 눈, 즉 Eye가 없는 사슴은 ‘No Eye Deer’가 되는군요. 이걸 패러디하면 No Idea가 되지요? ‘I have no idea’가 ‘몰라’의 뜻이니까 No Idea를 ‘아이디어가 없어, 상상력이 없어’로도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미래의 문맹을 ‘눈깔 없는 사슴’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

이미도

외화번역가·저술가·출판인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 지음



마이클 조던을 움직인 사람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중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이클 조던은 어린 시절부터 '농구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던이 대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프로농구 팀인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에 입단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돈 한 톨 없었던 조던은 친구들이 마련해준 돈으로 시카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공항까지는 도착했으나 기장기장까지 갈 차비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전후사정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돈 한 톨 없고 인상이 험한 흑인을 태워 줄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조던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택시가 한 대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던의 절박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택시 운전사가 그를 기장기장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선뜻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도움으로 경기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조던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반드시 유명한 선수가 되어 꼭 은혜를 갚겠다고 인사했고, 그 말을 들은 택시 기사는 빙긋이 웃으며 "시카고를 위해 좋은 경기를 보여 주세요. 제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조던은 프로 농구 선수로서 일취월장(日就月將)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어느 선수도 흉내 낼 수 없는 현란한 드리블과 멋진 플레이로 7년 연속 득점왕과 3년 연속 챔피언 시리즈 MVP가 되었습니다.



조던이 시카고는 물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었을 때 그는 무명시절 자신을 도와준 택시 운전사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조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시카고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를 움직인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은 시카고의 한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무명시절의 마이클 조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 택시 운전사와 정상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마이클 조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닌 아주 조그마한 호의와 정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철 건강을 위한 허리돌리기

글 이희주 | 사단법인 홍익요가협회장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은 해마다 새해 아침에 저마다의 소망을 빌며 한해를
잘 보내고자 결심을 한다. 그런데 사흘만 지나도 그 결심이
흐려지기 시작하여 한달이 지나면 아예 소망만 남아있고 실
천은 없어지기 일쑤이다.

그런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을 위하여 설날이 있으니 얼마
나 다행인가? 음력 1월 1일인 설날부터 다시 새로운 기분으
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설날
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강제로 양력설을 지내게 하였다. 아무리 말
을 해도 듣지 않아 당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설날이 다가
오면 아예 며칠간 떡방앗간의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한
다. 그리고 흰옷을 입으면 일본군사들이 먹물을 뿌리기도 했
다 하니 지금 생각해봐도 나라를 잃은 설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에게 명절이란 효(孝)의 표현이다. 잘 알려진
심청이가 눈 먼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를 잃은 지극정성의
효를 보여주고 있다.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지자 그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심청이를 살려주었고 후에 왕비가
되게 하였다. 왕비가 된 심청이는 요즘 말로 하자면 잘 나
가는 남편과 시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신분상승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여 눈을
뜨셨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실까를 걱정하며 눈물로

지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자 전국의 눈 먼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사실 이야기대로만 따라가자면, 공양미 삼백석을 부쳐님께 바치면 심 봉사의 눈이 떠진다고 했으니 심청이가 왕비가 된 건 아니건 상관없이 심 봉사는 눈을 떠야 한다. 그런데 실제 눈을 뜬 것은 왕비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전국의 눈 먼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 그 자리에서 부녀상봉하는 순간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심청전을 뒤집어보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만약 심청이가 왕비가 된 다음에도 호의호식하며 아버지를 나 몰라라 했으면 심 봉사는 영영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란 점이다. 공양미 삼백석은 길으로 드러나는 조건에 불과하고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제 조건은 끝도 없는 무조건적인 효심이었었던 것이다.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나의 근본은 바로 살아있는 부모님이며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님, 이런 식으로 거슬러 나에게 부모님은 바로 하늘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다. 사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러한 우리의 정신이 지나치게 교조적인 유교문화에 의해 잘못 전승된 점도 있으나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사후에도 이어져 제사나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요즘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말하지만 조혼이 일반화되었던 옛날에는 한 세대가 20년에 불과하다. 40대에 이미 자식이 장성하여 손자, 손녀를 볼 수 있으니 요즘과 달리 3~4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니 함께 살고 자기를 돌봐주며 귀여워 해주었던 조부모나 증조부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요가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나(我)'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나의 근본, 나의 뿌리를 모르고서야 어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으랴. 요가는 공부와 직장일과 사회생활에 몰두하느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나의 몸을 알고, 나의 본성을, 나의 근본을 알고 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설날과 입춘이 있는 2월에 또 한번의 시작을 위하여 흐지부지되었던 요가수련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보자. 건강한 허리를 만들어주고 비뇨생식기 계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허리돌리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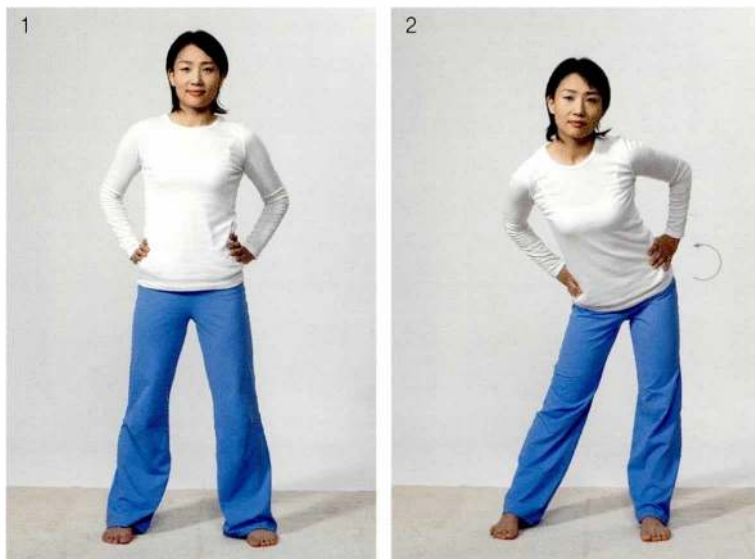
〈허리돌리기〉

* 방 법

1. 두 발을 어깨넓이로 벌려 선다. 이때 두 발을 8자로 벌리지 말고 11자로 나란하게 만든다.
2. 양 손으로 허리를 잡고 왼쪽으로 크게 원을 그린다. 숨을 마시면서 배를 앞으로 내밀고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뒤로 돌린다.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원을 크게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호흡에 잘 맞추고 가능한 코로만 숨인다. 왼쪽으로 10바퀴 돌린 뒤 오른쪽으로도 10바퀴 돌리며 몸 상태에 따라 3~4번 되풀이한다.

* 효 과

1. 허리와 골반을 유연하게 해준다.
2. 장내 연동운동이 활발해져서 소화기능에 도움이 된다.



※ 이승용 저, 『음양요가』 (도서출판 홍익요가연구원, 2007년)에서 저자와 출판사의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였으므로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정비현장 만든다

- 군수사령관, 창정비 현장 근무 통해 정비품토 개선 강조
- 날개장착, 페인트 제거, 엔진 분해, 세척, 조립 및 시운전 총 지휘

군수사령관은 2008년 군수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인 정비품토의 질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항공기 정비장을 찾아 현장 지휘 활동에 나섰다.

군수사령관은 이날 81항공정비장에서 진행된 항공기 창정비 현장 근무를 통해 열악하기로 소문난 항공기 주날개(main wing) 장착과 페인트 제거 작업은 물론, 항공기 엔진의 주요부품 분해, 세척, 조립 및 시운전 등 창정비 공정 전 과정을 정비사들과 함께했다.

지난 해 F-16 전투기 창정비 체험에 이어 금년에는 F-5 전투기 창정비 현장을 방문한 군수사령관은 최근 사령부가 획득한 ISO 9001 국제품질인증자격 기준에 부합된 정비 품질 보장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완벽한 정비지원'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근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군수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군수사령부는 2008년 새해를 맞아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정비품토의 정착>을 새로운 모토로 삼고, 이를 일선 정비 현장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군수사령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군수분야 체질개선을 토대로 새해에는 교육체계의 혁신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군수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군수혁신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이날 F-5 전투기 창정비 과정에 참여한 군수사령관은 "군수분야 업무를 통합적 시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새해



군수사령관은 정비현장 근무를 통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비품토를 정착해 나갈 것을 공군 정비사들에게 강조했다. F-5 전투기 엔진을 정비사들과 함께 조립하고 있는 군수사령관

군수분야 작업 현장에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업무품토, 그리고 정확하고도 신속한 업무수행 품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AP**

(군수사령부 정훈공보실)



면담, 우리는 온라인(On-Line)으로 해요!

- 공군방공포병학교 '사이버 면담 체계' 구축 -

장리 대위 최재영 | 방공포병학교

방공포병학교 교육지원중대가 인터넷 세대인 신세대 장병들의 실질적 면담을 위해 전군 처음으로 '채팅식' 사이버 상담소를 개설,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병사들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중대장과 미리 면담 시간을 예약, 인트라넷으로 '채팅' 처럼 사이버 면담을 할 수 있다.

'사이버 면담체계'는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신세대 병사들의 의식과 특성을 고려하여 인트라넷에 온라인 상담소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지휘관·병사간 1:1 사이버 또는 대면 면담, 병사 상호간 1:1 사이버 면담, 계급별 사이버 면담 등 유형별로 면담형태를 다양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별 선호도에 따라 면담신청·면담일 확정·실시간 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면담이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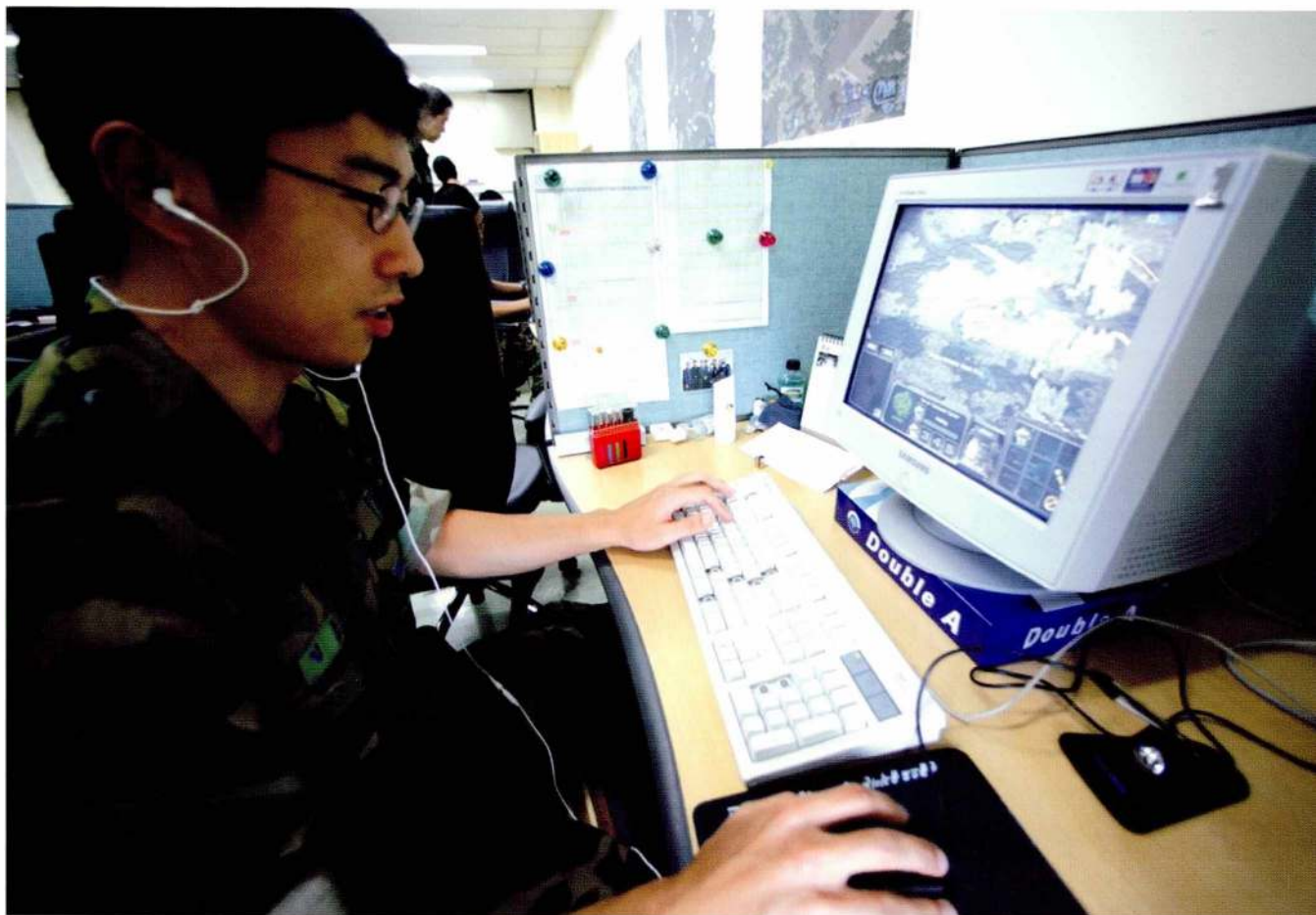
무엇보다 기존의 1:1 대인(對人)면담 방식이 주는 소극적·형식적·방관적 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적극적·자율적·참여적인 양방향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담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사이버 면담'에 참여했던 김정민 이병은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와 달리 마치 채팅을 하는 것처럼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신청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말을 다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밝히며 '사이버 면담'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을 구축한 교육지원중대장 이경호 대위는 "이제는 면담도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면담체계가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면담은 병사들에게 기존 면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인간중심의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더 발전시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





「皇帝」사전에 「ctrl+v」는 없다



글 중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21세기. 벨트버클 하나에도 철학이 있고, 멀티컬러와 다미에 백 사이에서 1시간을 고민하는 개성 뚜렷한 사람이 많은 시대라고들 하지만 동시에 제주도의 한 소년이 뉴질랜드 목동이 키우는 코요테가 얼마나 자랐는지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위대한 웹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말은 즉, 이번호의 주인공 임요환이 오늘 용산에서 선보인 전략이, 내일은 티티카가 호수에 살고 있는 소년에게 얼마든지 채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매우 창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모방상태」인 이 시대에 10년 동안 독창적인 전략으로, 아직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 [2007-12-7 포모스] 황제 임요환, 꼼꼼한 플레이로 개인전 7승째
- [2007-12-11 OSEN] 황제 임요환, 매서운 기량 보여주며 후기리그 8승
- [2007-12-12 노컷뉴스] 임요환, 진정한 '황제'로 진화 중
- [2007-12-16 포모스] 황제 임요환, 색다른 플레이로 개인전 9승째
- [2007-12-31 스포츠서울] 황제 임요환 '제대 전 한 건 하겠습니다'
- [2008-1-1 파이팅포럼] 김정민 '황제 임요환 10승 시사하는 바 크다'
- [2008-1-4 스포츠조선] 英 언론 '임요환은 e-Sports계의 데이비드 베컴'
- [2008-1-5 포모스] '황제' 임요환, 11승 후기리그 개인전 테란 최다승

皇帝? 베컴?

D포털사이트의 임요환 팬카페인 '임요환의 드롭십이닷'에

실린 임요환 관련 기사들 중 발췌한 것이다. 필자가 검색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5일까지 채 한 달이 못되는 기간 동안 관련기사 건수는 20건, 이중 '황제'라는 표현이 포함된 제목이 8건이고 '에이스'라는 표현이 2건, 독특하게도 '베컴'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07패치 시절 짱패질러와 꺾값 러커에 동네북 신세였던 테란이라는 종족을 말도 안 되는 드롭십 컨트롤을 통해 단숨에 최강종족으로 발돋움시키면서 얻은 '드롭십의 황제'라는 별명은 곧 '테란의 황제'로, '황제'로 진화하며 10년째 그의 별명이 되었다.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ACE」 선수가 되면서 얻은 'ACE'에 이어, 이제는 영국에서도 e-Sports계에서 그의 독보적인 스타성을 인정해 '베컴'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Emperor in blue storm

신한은행 2007 후기프로리그 14주차 MBCgame HERO와의 2세트 경기에서 임요환은 민찬기를 제압하고 11승으로 염보성과 함께 후기리그 테란 개인전 최다승을 기록했다. 센터 6시 근처에 전진배력을 건설하고 배력을 날린 뒤 그 자리에 전진 2팩토리를 건설한 임요환과 소수마린 이후 본진 1팩토리 체제를 선택한 민찬기의 대결. 서플라이와 배력으로 입구를 막고 SCV정찰로 임요환의 전략을 파악한 민찬기는 시즈탱크와 스타포트를 확보했고, 임요환은 벌처로 압박에 나서며 앞마당 멀티와 스타포트를 추가했다. 민찬기는 앞마당 멀티를 추격하며 레이스 견제와 병력 생산에 나섰지만, 임요환은 2스타포트 클로킹 레이스로 상대를 견제하는 가운데 6시 멀티까지 확보하며 승기를 잡았다. 민찬기는 SCV까지 동원해 임요환의 공격라인을 걷어내고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벌어진 자원과 병력의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GG를 선언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보기에) 의도했던 것보다 조기에 전진팩토리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파악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박자 빠른 확장을 통해 중후반 이후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전진배력이나 전진팩토리는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보다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진 방어가 허술해지고 생산건물마저 상대방에게 장악당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고 말한다. 성공하면 좋지만 일단 전략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끝

BBC

Home News Sport Radio TV Weather Languages

UK version International version About the versions

BBC NEWS

WATCH Live BBC News 24

News Front Page

[Africa](#)
[Americas](#)
[Asia-Pacific](#)
[Europe](#)
[Middle East](#)
[South Asia](#)
[UK](#)
[Business](#)
[Health](#)
[Science/Nature](#)
[Technology](#)
[Entertainment](#)

Also in the news

[Video and Audio](#)
[Have Your Say](#)
[In Pictures](#)
[Country Profiles](#)
[Special Reports](#)

RELATED BBC SITES
[SPORT](#)
[WEATHER](#)
[ON THIS DAY](#)
[EDITORS' BLOG](#)

RELATED BBC SITES
[SPORT](#)
[WEATHER](#)
[ON THIS DAY](#)
[EDITORS' BLOG](#)

Last Updated: Thursday, 3 January 2008, 16:29 GMT

E-mail this to a friend [Printable version](#)

South Korea's 'e-sports' stars

By Lucy Ash
Producer, Crossing Continents

In South Korea, the most wired country on earth, computer gaming is a national obsession.

Top players, known as 'e-athletes', can earn hundreds of thousands of pounds and some are worshipped like pop stars.

The girl in the pink fluffy sweater giggles when I ask about the roll of paper she is clutching in her hand.

With a furtive glance at her boyfriend, she unrolls the poster. Written in felt-tip pen and decorated with hearts, it reads "Lim Yo Hwan - Marry Me!"

The boyfriend laughs. "I do not really mind", he says. "I like him a lot too. He is aggressive, he knows how to push."

Lim Yo Hwan, a pro-gamer who went undefeated for more than two years, is known as the Emperor to his legions of fans.

The boyfriend laughs. "I do not really mind", he says. "I like him a lot too. He is aggressive, he knows how to push."

Lim Yo Hwan, a pro-gamer who went undefeated for more than two years, is known as the Emperor to his legions of fans.

Some call him the David Beckham of the electronic sports world.

His boyish good looks - as well as his prowess with the mouse and the keyboard - have earned him dozens of lucrative contracts and sponsorship deals.

We have come to watch him play in a vast underground shopping centre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National Service

Lim Yo Hwan used to belong to a team sponsored by one of the country's biggest mobile phone companies, but now he is playing for something even more strategic: the South Korean air force.

Like all his male compatriots, he must complete two years of national service. Unlike most of them, he is mainly serving his country by playing a sci-fi themed strategy game called Starcraft.



Fans show their support for pro-gamer Lim Yo Hwan



Lim Yo Hwan says "military discipline" has enhanced his playing

장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과감히 레이스를 추가하는 허를 찌르는 전략과 컨트롤이 뛰어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상대방이 자신의 본진을 공격할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오히려 상대방의 확장에 피해를 입히는 놀랍도록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준비와 연습이 중요하다

임요환의 부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공군ACE의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실전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단지 실전에 많이 참가했기 때문이라면, e-Sports 연재 초기(6월)부터 지금까지 반년동안 배틀넷에서 500게임 이상 실전경험을 쌓은 필자도



실력이 많이 늘었어야 옳은데, 6개월 전 그대로 어찌면 그때만도 못한 지금의 실력을 보면 실전경험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실력의 상승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그렇다면 임요환 부활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량이다. 지금까지 최인규, 성학승, 조형근, 김환중, 이주영, 강도경 선수와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밝힌 의견이 '임요환의 연습량은 지독할 정도'라는 것이다. 남다른 승부욕으로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기량 정상화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온게임넷 김정민 해설위원이 임요환과 최연식의 경기를 보고나서 밝힌 견해가 있다. 그 경기에서 임요환은 초반 벌치 흔들기에 성공한 뒤 빈집 털이, 마인 매설로 인한 대박, 허를 찌르는 드롭십 전환, 끊임없는 견제 플레이 등 임요환이 테란vs테란전에서 자주 쓰던 전략들의 집합체였다는 것. 이 공격들이 차례로 통하는 모습은 상대가 전열을 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잭을 계속 날리면서 보디 블로로 다운시키는 Boxer(임요환의 ID)의 진면목이었다고 감탄했다. 민찬기와의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皇帝」사전에 「ctrl+v」는 없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의 어떠한 전략도 임요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상식을 깬 대(對) 토스 전에서의 센터배력과 메딕+레이스 조합(메딕의 옵티컬 플레어와 레이스의 클로킹을 활용하는 전략), 터렛신공을 통한 캐리어 사냥, 병커를 이용한 일당백의 수비와 SCV댄스, 원팩윈스타 더블커맨드라는 기적의 빌드 등등 말도 안되는 바이오닉 부대와 드롭십 컨트롤이라는 트레이드마크의 이면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눈부신 전략들이 숨어있다.

임요환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전략들이 그의 손을 통해 실현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e-Sports의 대표아이콘 임요환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자신만의 전략을 고수하고 ctrl+c → ctrl+v를 거부하는 황제 임요환의 부활에 공군ACE의 미래도 밝아 보인다.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및 후원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사회 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 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 봉사활동



■ 후원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 한국항공소년단)
- ※ 기부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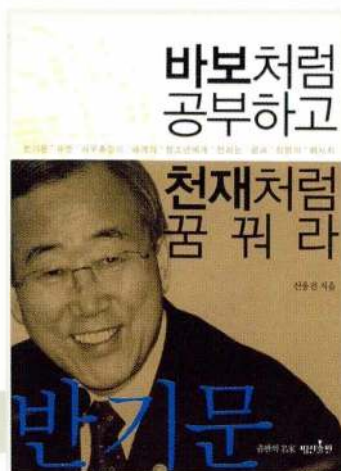


한국 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신웅진 지음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글 중령 강성구 | 공군본부 비서실



1971년 제1회 박스컵(박정희 前대통령의 이름을 딴 축구대회) 결승전은 버마(미얀마)와 한국의 명승부였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소유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당당히 지역사회 꼬마들을 통솔해 가면서 그 경기를 관전했었다. 연장전까지 간 끝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끝났지만 버마선수들의 투혼은 우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미얀마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어린 나에게 버마라는 이름의 나라는 알 수 없는 나라였다. 하지만 버마와 연관된 확실한 정보가 한 가지는 있었다. UN 사무총장이 버마 출신의 우탄트라라는 것이었다. 유엔테이를 국경일로 기념할 만큼 유엔의 도움 속에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새롭게 국가를 건설했던 대한민국이었기에 어린이들에게도 UN 사무총장의 이름은 회자되고 있었다. 버마선수들의 물결이 상당히 초라해 보였지만 아시아 최초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그 나라를 무시하는 한국인은 없었던 것 같다.

한 나라의 이미지까지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그 UN 사무총장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반기문 전 외무부 장관이 당선되었다. UN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그가 떠날 즈음 많은 보도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꽤나 알려져 있지만, 이 책만큼 일목요연하게 반기문의 삶을 조명한 책은 없는 것 같다.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로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YTN 신웅진 기자가 쓴 이 책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의 청소년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어떻게 충주의 시골 소년이 19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UN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저자는 '실력'과

'겸손'으로 삶을 일관한 그의 인품을 들고 있다. 사실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지켜보아도 겉과 속이 한결같은 리더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 리더의 용량은 대개 그 한계치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저자는 외교통상부가 과중한 업무부하로 놀려있을 때 반기문의 행보를 근접해서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그의 품성에 깊이 매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가갈수록 존경할 부분이 커지는 리더, 先公後私의 기준을 단 한 번도 흐트리지 않은 공직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끈을 놓지 않은 자연인. 이 책은 이러한 반기문의 에피소드들로 묶여있다.

꿈을 이루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잃어간다. 서른이 넘은 후로 나에게 "네 꿈이 뭐니?"라고 물어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내 꿈도 그 즈음 사라진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은 분명 꿈을 이룬 사람이다. 외시 차석 합격, 연수원 1등 수료,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부장관, 그리고 세계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과하지 않은 UN 사무총장의 길을 갔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미치도록 즐기고 행복해 하였다는 것에서 그가 진정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는 젊은 병사들이 UN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돼지를 키울 때도 정성을 다했던, '살에 진지한 반기문'을 더욱 높이 평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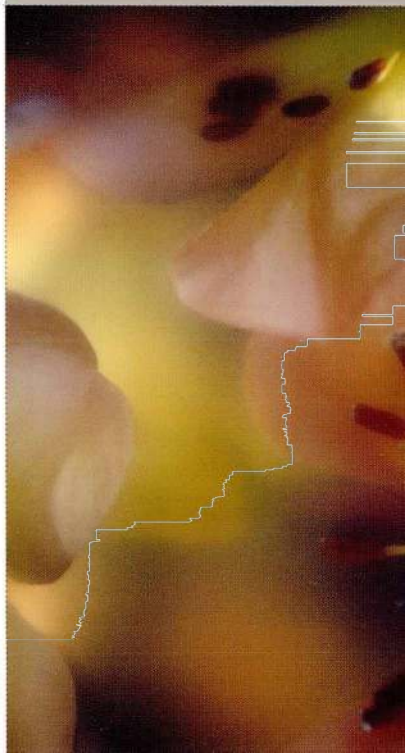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2월 20일까지

1. 독보적인 항공우주의료분야의 노하우로, 올해 4월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인을 선발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공군의 의료기관은?

2. 2007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3. 높은 산 위의 부대에는 물 공급이 중요하다. 30단 고태혁 병장과 같이 양수장 작동상태 점검을 하는 병사를 일컫는 표현은?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2007년 12월호/2008년 1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2008년 1월호 정답

1. 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
2. 군수관리단
3. 공군 브랜드 이미지 강화 프로젝트

2007년 12월호 당첨자

전라남도 목포시 김소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윤정배
경상북도 포항시 정혜경
전라북도 군산시 김정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우순진
충청남도 공주시 박준규
경상북도 울진군 최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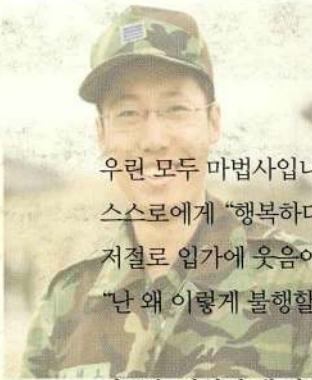
2008년 1월호 당첨자

경상북도 안동시 공철균
경상남도 김해시 정그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은혜수
경상남도 양산시 배유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정식
대구광역시 서구 강구권
충청북도 충주시 이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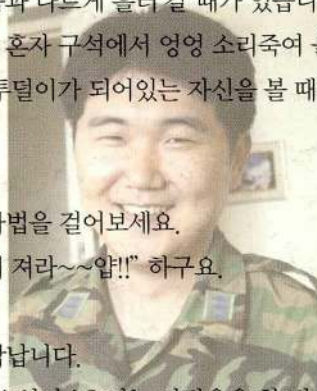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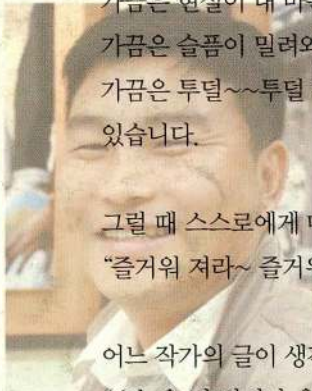


웃음의 마법사



우린 모두 마법사입니다.
스스로에게 “행복하다”라고 마법을 걸면 정말 행복해 지고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마법을 걸면 참 불행한 기분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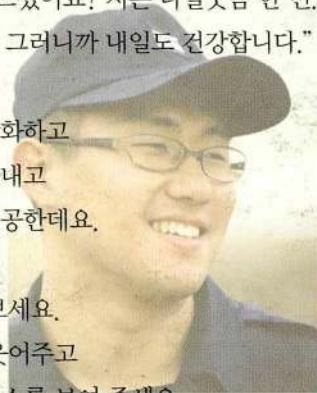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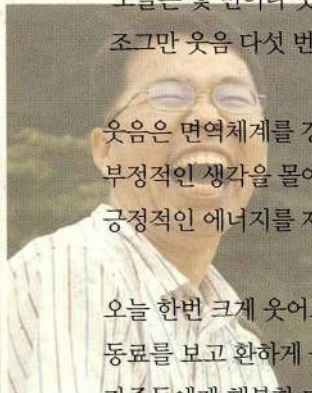
글·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가끔은 현실이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슬픔이 밀려와 혼자 구석에서 엉엉 소리죽여 울어 보기도 하구요.
가끔은 투덜~~투덜 투덜이가 되어있는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어보세요.
“즐거워 저러~ 즐거워 저러~~얍!!” 하구요.

어느 작가의 글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저는 너털웃음 한 번.
조그만 웃음 다섯 번, 그러니까 내일도 건강합니다.”



웃음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데요.

오늘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동료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고
가족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보여 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의 마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